

## 보건소 이용실태 점검

# 많은 이용 비해 의료진 부족

### 하루 평균 진료 60여 건, 의료진 2명에 불과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인 동시에 또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이에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삶의 조언자도 돼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 역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학내 복지시설 이용 실태에 대해 2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편집자

① 학생상담센터

② 보건소 · 여학생실

학내 전 구성원들이 '교육강화'를 우선시하며 학습량 증대와 교육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학업량과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십상인 만큼 건강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복지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건강파수꾼' 역할을 하는 보건소(소장=이명중·한의학) 이용실태를 살펴보자. 보건소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특검 예방접종 △정기 건강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에 보건소를 찾는 인원은 진료 60여명, 상담 2~3명에 달해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의 심선영 직원은 "상담의 경우 체지방 측정을 통해 식습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 의료진은 간호사자격증 소지자가 한명에 불과해 양호실 이상의 진료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의사도 한명 있지만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진

료하는 데 그쳐 환자 경과에 따른 꾸준한 진료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받는 인원이 7천명이나 돼 환자와 검진 결과에 대해 상담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상담이라는 의미가 미약해 보인다.

타대학을 살펴보면 의료공제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의료진을 충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고려대=의사 1명, 간호사 3명 △이화여대=의사 2명, 간호사 1명, 약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X-ray기사 1명, 치과 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보건교육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분야별 전문 상담을 하는데 용이하다.

### 타대학 '웰빙' 보건소 인기

이화여대의 경우 '웰빙'이라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체중관리, 여드름, 치아교정 등의 클리닉이 있어 외부로 어렵게 찾아다니지 않고도 부담없이 학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의 김주영 직원은 "치아클리닉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인기가 좋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교생이 2만 명인데도 일년에 진료교수만 4만 5천건이나 된다.

이는 구성원들의 기호와 관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대는 매주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며 운동과 영양상태를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농활, 연수, 동아리 모임 등이 있을 때 구급상을 대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은 사이버 진료에도 관심을 기울여 직접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이버 상으로 해소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대학의 경우 보건소 수준을 넘어 전문 병원에 가까운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전문적 인 진료는 어렵더라도 다음해 불교병원이 개원하는 만큼 현재 주 1회의 한의사 진료를 주 2~3회로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내에서 간단한 소지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우리학교도 교육강화 사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실 점검 2면(보도)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주말 없는 졸업반 ...

겨울문턱, 최악의 불황 속에서 도서관에는 주말에도 학업열기가 뜨겁다.

정기훈 사진부 객원기자 tal@dongguk.edu

## 동대 학술상 · 문학상 시상

제42회 동대학술상과 제19회 동대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9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학술상은 인문과학부문 △장원=허아영(국고3)의 '존재의 증명' △가작=김혜진(철4)의 '도연명의 작품에 나타난 노장사상'이며, 사회과학부문은 △장원=조현민(호텔경영4)의 '외식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인식 변화' △가작=임성환(지리교육4), 김준(지리교육3)의 '서울시 중구 지역혁신역량 재고방안 연구'가 수상했다.

자연과학부문의 경우 장원작은 없이 △가작=김종원(정보통신공4)의 '무선랜과 홀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윤하나(화4)의 'cloning and Expression of gene encoding the E-cadherin epitope'를 선정했다.

문학상은 소설부문 △장원=이희진(문창3)의 '흐르는 모래 발자국'

△가작=배명은(국어국문4)의 '나비의 무개'이며, 희곡·시나리오부문 △장원=정재문(문창3)의 '계절학기' △가작=전한성(국어국문4)의 '안개, 섬'이며, 시부문은 △장원=임세화(문창2)의 '빛줄' △가작=전유석(법4)의 '벽'이 수상했다.

한편 지난 5일 진행된 English Essay Contest 시상식도 이날 진행됐다. △최우수상=김재은(한외4) △우수상=박지혜(신방4) △장려상=노영진(영문4) △특별상=최예남(경영4) 학생이 수상했다.

▶관련 수상작 소개(6, 7, 8면)

### 알림

이번 제1399호가 2004학년도 2학기 종강호입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400호는 2005년 2월 18일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강의전담교수제 확정

### 다음 학기 3~40여명 모집할 듯

교육 및 연구분야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외부에서 실시되는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저조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강의전담 초빙교수제의 도입이 확정됐다.

강의전담 초빙교수는 본교에서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타 직종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전임교원과 달리 일정량의 연구업적 의무가 없다.

강의전담 초빙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교원선발방식과 동일하게 해당학과와 선발과정을 거쳐 소속대학장이 추천하고, 기획인사처장의 심사 후 교원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위촉한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선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학교의 교원확보율이 2005년도까지 55%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 40~50명 정도의 강의전담 초빙교수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예산과 각 학과 사정에 따라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전담 초빙교수 모집 일정은 다음주 내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동대문학상 시부문 장원

## 빛줄

임세화(예술대 문창2)

가끔막진 비탈길  
모든 것은 위로 향한다  
누구도 밑을 보지 않는다  
구름 전봇대 도둑고양이 과자봉지  
발자국  
기울어진 만큼 몸을 꺾는다  
모든 것은 아슬아슬  
매달린 빨래  
하나의 사물엔 하나의 빛줄이 내려진다  
팽팽한 생의 긴장  
옆으로 뒤로 뒤틀린 꼬임을  
따라 소슬소슬 상처가 있느냐  
핏줄 같은 실타래  
가생이부터 툭툭 끊긴다  
가랑이 새로 뒤졌던 혈흔  
빛줄에 묶여 오른다  
근매가 묻은 빛줄은  
그러나 아직 뻗뻗하다  
풀리지 않을 단단한 매듭 맞은편은  
백발의 멜로디  
희미한 못자욱 음표를 쫓아놓는다  
생 또한 올라갈수록 숨이 찬  
비탈임을 아는 노파의 휴식  
관이 묶인 빛줄  
속으로 파가 통하고 있다  
서걱대는 바람의 끝은  
비탈을 오르는 휘파람 냄새  
곰개 따리를 뜯 죽음이 혀를 날름대고 있다  
비탈만큼 몸을 기울인 햇볕이 생을 말리고 있다

## 2005학년도 정시모집 접수

### 다음달 22일부터 6일간 온라인 통해

2005학년도 정시모집 접수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12시까지 인터넷(www.dongguk.edu, www.uway.com)을 통해 실시된다.

이번 정시모집은 7차 교육과정 개편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전형 방법은 △가군=일반전형과 취업자·농어촌·특수교육·실업

계 특별전형 수능 100% △나군=일반전형, 수능을 비롯한 학생부 성적과 논술고사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1,998명이다.

수능 반영영역을 살펴보면 △인문계열 전체, 식품자원경제학과=언어, 외국어, 수리 '가'와 '나' 중 선택, 사탐과 과탐 선택 △이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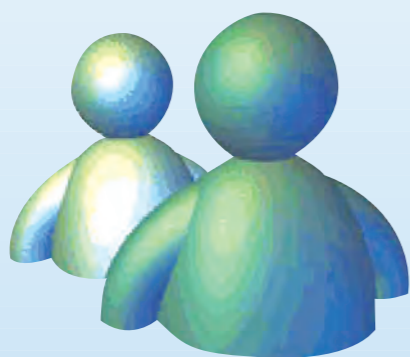
공과대, 수학교육과=외국어, 수리 '가', 과탐 △정보산업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식품공학과, 가정교육과=외국어, 수리 '가'와 '나' 중 선택, 사탐과 과탐 중 선택 △예체능 계열=언어, 외국어, 사탐 과탐 직업탐구 중 선택이며 탐구 영역은 성적이 가장 우수한 3개 과목을 일괄 합산한다.

실기고사는 가군은 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나군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공별로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가군은 1월 11일, 나군은 1월 21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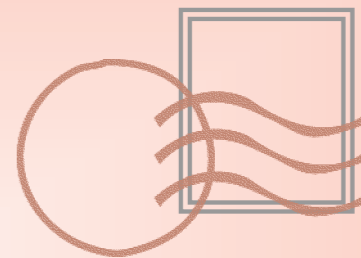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 동대신문사

## post card



1학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새내기 생활도  
마무리할 때입니다.  
한 해를 어영부영 보냈다고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먹은 일 하지 못해  
속상해 하고있지는 않나요?  
이제 동대신문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 있을것입니다.  
이번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원서접수 : 11월 25일까지

전형일시 :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

원서교부 및 문의 : V동 1층 동대신문사

2260-3491~2

# 행정조직개편 설명회 열려

## 부속교육기관 신설·교학과 통합 등 제시

각 단위 기관의 자율성 강화, 교육강화 시스템 구축, 행정시스템 효율성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가 지난 15일 다관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행정조직개편은 교육강화 필요성 증대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의지에 발맞추기 위해 본교에서 준비해 온 사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원 교학과와 관련 단과대 교학과 통합 △교양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부속 교육기관 신설 △각 부처 행정 개편 △입학처 신설 등이다.

설명회를 준비한 기획심사팀은 대학원 교학과와 관련 단과대 교학과 통합은 특수대학원장과 관련 대학학과의 겸직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통합과 겸직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을 통합함으로써 그로 인해 생기는 공간은 확보하고 인력은 다른 부서로

충원해 일의 능률도 올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학원과 학부 교학과가 통합될 경우 학습관에 약 280여평의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는 대학원 세미나실, 연구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몇몇 단과대학들 간의 교학과 통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신설 부속교육기관으로는 교양교육원, 국제교육원이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가상대학의 업무까지 총괄하게 되며 국제교육원 산하에는 외국어교육센터, 한국어학당, 국제교류실이 운영된다.

또한 입학처는 입학기획팀과 입학관리팀으로 구성되며 취업지원센터는 학생처 산하에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행정조직개편에 동의

하지만 학교 인프라의 확충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분권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모양 갖추기에 불과하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행정조직개편(안)에 조직 개편 후 업무분장내용과 업무이관사항, 인력운영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했으며, 대학·대학원의 사무조직 통합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조직개편 목적이 불명확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이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정관정원 조정·증원이 행정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학술강화' 협정 ...** 우리학교 국제정보대학원(원장=서윤길·불교학)이 지난 18일 영국 런던대 로열홀로웨이 ISG(Information Security Group)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학술교류 등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위 사진은 런던대의 파이프 교수와 서윤길 원장이 협정서를 들고 악수하는 모습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자연계 수시 합격생

#### 1월부터 사전교육 실시

200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모집 합격자 사전교육이 다음해 1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매주 월, 수, 금 총 15일간 실시된다. 이는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의 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교육대상은 △이과대(수학, 통계학 제외) △생명자원과학대 △공과대 △정보산업대(산업시스템공학부 제외)의 수시모집 합격자 약 410명이며 개설 교과목은 △기초수학 △기초물리학 △기초화학 △기초생물학이다.

학점은 각 과목당 2학점이며 각 단과대 지정 2개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평가는 P/F이며 이밖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된다.

### 상록원 매점 연장운영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상록원 매점을 연장 운영한다.

이번 연장은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이며 시험기간을 맞은 학생들에게 야식을 제공하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했다.

### 여학생실 이용실태 점검

# 학내 여학생들의 열린공간 돼야

## 학생들 있는지 조차 "몰라" ... 강연회 등 개최 필요

21세기에는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여학생의 수는 평균 40%를 넘으며 그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여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고, 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학내 중앙지원 조직으로 여학생실(실장=손재현·체육교육)을 마련해 △취업 능력개발프로그램 △성폭력 예방교육 △단기강좌 개설과 각종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본교 여학생들은 여학생실의 위치나 진행 중인 각종 프로그램 등을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여학생실은 학림관 옆 계산관 건물에서 △1층=사무실, 비디오 관람실, 인터넷 카페, 공부방 △2층=여학생 휴게실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위치상 학교 후문 쪽에 치우쳐 대부분의 이용자가 사범대 학생들이나 정산대 학생들이 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실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조차도 이

장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취업능력개발프로그램이나 여대생기업연수, 성폭력 상담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재인(지교1)양은 "잠깐 쉬거나 피곤할 때 자주 들리고 있는데 강좌나 상담 프로그램 등이 진행 중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타 대학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를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는 여학생실에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는 여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를 담당하는 기구와 성폭력 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는 학교 중앙기구로 여학생처가 설치됐고 그 산하에 성폭력상담실과 여성인력개발연구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양대에서도 성폭력 상담센터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커리어개발

센터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취업, 교육 등 20여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장기영 전임연구원은 "센터장과 전임연구원 등이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을 위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 중인 타 대학의 경우 전문 상담 과정을 수료한 상담원을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본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해 타 대학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학교 역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강연회, 특강 등이 확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찰음식조리, 연등 축원문 공모전 등은 요즘 여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참신하고 새로운 행사들을 마련해 본교 전체 여학생들의 '열린'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희 기자  
bob83@dongguk.edu

### 히전문대

#### 소수의견 존중

○...어느 단과대 선거는 투표율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알아보니 선거 참여 학생수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선거가 성사될 수 있다고.

원반수 이상 참여하지 않는 인원 생겼을 경우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수업분위기는 소수정예가 중요하다는데 투표도(!)"

#### 견학 94주년 행사(?)

○...오프라인에서는 견학 1백주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멈춰 있는곳이 있다는데.

알아본즉, 우리학교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가 2000년도 이후 업데이트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견학 1백주년인 53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학교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견학 94주년 맞이 박물관 행사는 '온라인 멈춤제'를 열었습니다(!)"

#### 강의실의 난

○...동국관 M303 강의실 수업은 열악함을 넘어 험난하게(?) 진행된다는데.

이유인즉 마이크 고장이 몇 주째 계속돼 사용이 불가능한 데다 최근 난방 스템에서 물이 새 강의 시간에 강의실 바닥 물청소를 해야만 한 것이라고.

강의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발표자 소리와 함께 들리는 대걸레 짜는 소리(!)"

#### 충전기를 충전해

○...학내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데.

이유인즉 건물마다 설치된 핸드폰 충전 기계 대부분이 고장 중이어서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을 위해 설치된 기구인 만큼 그 관리에 더욱 철저해 '자리만 차지하는' 기계로 인식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핸드폰 충전을 위해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땀다(!)"

# 에코포럼 '쟁점심포지엄'

## '환경영향평가제도...' 주제로 12월 4일 열려

생태환경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학제적 토론장을 마련하고 있는 에코포럼에서 '쟁점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는 환경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주제를 정해 매학기 1회 진행되는 것으로서 실생활에 밀접한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기대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제1회 쟁점심포지엄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다음달 4일 오후 2시 90주년 문화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양병이(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쟁점심포지엄의 발제는 △송영

일(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송현(밀양대학교 조경학)교수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환경운동가가 바라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순이다.

또한, 각각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토론자들이 환경영향평가도에 관한 토론을 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 커리어파워업 3차특강 25일

## 삼성경제연구소 이연오 본부장 강의 진행

졸업생 '애프터 서비스' 프로그램인 '동국인 커리어 파워업'이 오는 25일부터 2일간 3차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덕암세미나실에서 오후 7시에 열리며 '전략기획 실무

과정'을 주제로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연오 정책연구본부장이 진행한다. 강의 개요를 살펴보면 △전략의 기본 프레임 워크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강의가 2회 더 진행될 예정

이며 모든 강의는 이틀간 오후 7시에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앞으로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4차 특강=12월 2일(논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기법, 활용 방안 제시·현대인재개발원 윤봉락 본부장)이며 △5차 특강=12월 9일(자신의 가치를 조직의 가치로, 퍼스날 브랜드를 위한 전략·공선표인적자원연구소 공선표박사) 실시할 예정이다.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22)	어묵우동 (1800) 닭조림 (2000) 소고기볶음밥 (1800)	참치김치찌개 (1800) 돈가스 (1800) 생이채비빔밥 (2000)	된장찌개 (3200) 떡볶이 (3800) 자반우동 (3500)
화 (11/23)	양지탕 (1800) 제육볶음 (2000) 콩나물비빔밥 (1800)	갈비탕 (2000) 공중역류이 (1800) 간풍육 (2000)	된장찌개 (3200) 삼계탕 (4000) 산채비빔밥 (3500)
수 (11/24)	장터국밥 (1800) 오징어볶음밥 (1800) 두부김치 (2000)	닭곰탕 (1800) 헬김치볶음밥 (1800) 스파게티&모닝빵 (2000)	된장찌개 (3200) 대구지리 (3500) 제육볶음 (3500)
목 (11/25)	순만두국 (2000) 카레라이스 (1800) 리조기 (2000)	육개장 (1800) 오징어가스 (1800) 제육볶음 (2000)	된장찌개 (3200) 람박스테이크 (3800) 오징어볶음 (3500)
금 (11/26)	돈갈비김치찌개 (2000) 미트볼탕수 (1800) 소고기당면탕 (1800)	찜뽕수제비 (1800) 돈육계란조림 (2000) 쇠고기미역국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감자탕 (3500) 황태구이 (3800)

### 금주의 추천메뉴

**공중역류이** (상록원 화요일 중식)

왕이 먹던 맵지 않은 떡볶이. 떡에 고기와 야채를 함께 넣고 볶아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먹는 고추장으로 간을 한 것과는 다른 맛과 왕이 먹던 떡볶이를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동악게시판

- 제31회 동그라미 사진예술연구회 정기전**  
명진관 앞  
11월 22일~24일
- 제9회 동국기계전**  
원흥관 1층 공용공작실  
11월 22일, 23일  
주최: 동국대 기계공학과
- The 26th Eldronics Exhibition**  
11월 22일~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흥관 F 303/313
- 멀티미디어공학과 주최 초청 세미나**  
'국내의 게임 개발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강연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우종식 원장  
장소: E103  
일시: 11월 24일 오후 3시 30분
- O.F.O**  
학내 금융투자에 열의가 있는 학우들 모집.  
연락처: 010-4521-7860
- 가정교육과 일일호프**  
11월 27일 수요일 Cool(동국호프 열)

- 명진작은영화제**  
화, 금요일 A105 6시  
23일: 모던권력은 민중에게  
26일: 대지의 소금  
주최: 사학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학생회
- 음샘 정기공연**  
11월 26일 금요일 6시  
학림관 소강당
- 제3회 동국대 맑스주의 포럼**  
'왜 노동자 계급이 사회변혁의 중심인가'  
23일 오후 6시  
명진관 A205
- 취업**
- (주)나라컨트롤**  
모집부서: 기술영업 및 공사관리  
응시자격: 전기공학, 기계공학  
모집기한: 11월 30일까지
- (주)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서**  
모집부서: 신입  
응시자격: 상경/인문/사회, 건축/토목/기계/전기/안전  
모집기한: 12월 2일까지



## 이주의 본고역사

### 1992년 1학기 수강신청 OMR카드로

199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1991학년도와 다른 OMR카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돼 1992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각단과대 교과과에서 받았다.

교무과에 따르면 이전까지 이용해왔던 신청방식에서 탈피해 OMR카드 전산 처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학생들이 각 과목명 및 학수번호를 세 번이나 입력이 기입해야하는 불편함을 일정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OMR카드 전산처리 방식은 서울시내 타 대학에 비해 2~3년정도 늦은 데다가 학생들의 표기항목 기재잘못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 우리학교 교수 18명에게 학술연구비

**문교부·한국과학재단서 지급**

본교교수 18명이 86학년도 '문교부 자유과제 학술연구 조성비' 및 '한국과학재단 기초·목적 기초연구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문교부에서 관장하는 '자유과제 학술연구비'는 우수한 연구과제를 공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총·학장의 추천을 거쳐 문교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심의,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단독연구과제는 건당 5백만원이하, 공동연구과제는 건당 2천만원이하씩을 지급 받았다.

학생자치기구 점검 ② 졸업준비위원회·동아리연합회 사업 평가

졸준위 - 홍보 부족했던 취업 사업 아쉬워  
동연 - 동아리 아우르는 노력 부족해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지준석·토목4, 이하 졸준위)=졸준위는 총학생회의 산하 기구로 졸업앨범 제작과 취업 준비자를 위한 기입·학생 연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졸준위는 취업관련 행사로 △공무원 및 경찰 설명회 △여성취업 설명회 △타학교 연계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행사를 살펴보면 강사와 기업 섭외 등 행사는 비교적 풍부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는 E-mail 발송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체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대학생들이 취업에 관

심이 높은 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 취업분야, 정보 등의 설문조사도 실시해 기호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함께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한계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학교 취업지원팀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한편 앨범작업을 보면 지난해 계약업체가 대부분의 앨범비를 갖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앨범작업이 마무리 된 후야 대부분의 앨범비를 지급하는 업체선정을 하는 것은 좋은 평가로 보이나 업체선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시행하는 '인터넷 앨범'은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나와 진행됐던 가

편집본 확인을 온라인을 통해 해소했으며 자신의 사진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보인다. ▲동아리연합회(위원장=이동철·토목4, 이하 동연)=동연은 동아리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일종의 '동아리 학생회'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동연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업은 △동아리 지원금 인상 △공간문제 △동아리 활성화 △사회문제 참여 등이 있다. 우선 동아리 지원금은 지난 9년 동안 17만원으로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동연은 다양한 동아리들에게 동연제를 통해 지원금 부족문제를 알렸다. 하지만 이같은

활동이 실질적인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3월에 동아리 홍보를 위해 마련한 동아리 박람회의 경우 신입생들간의 소통창구 즉, 커뮤니케이션을 마련하지 못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었다. 한편 지난 동연제는 최근 몇년간 진행됐던 동연제에 비해 △동아리 청정지역 △동아리 체육대회 등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공연동아리에 집중하는 등 학술동아리 참여를 이끌지 못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앞으로 모든 동아리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주상 기자 hjsz228@dongguk.edu

대학원 등록관련 학칙개정 논의 전개  
원충, '학점당 차등 등록' 요구 ... 학교 "내부 검토중"

대학원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가 '대학원 정규과정 미 수료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학칙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본교 대학원 학칙 중 '등록 및 학적에 관한 내규' 제3조에는 '석·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최소 4학기의 정규등록을 해야 하며 최소 정규등록 기간을 마치고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정규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동안 최소 이수학점인 36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5학기 때에는 수강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대

학원은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이 9 학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못할 경우 5학기를 다니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전액등록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신정민 총학생회장은 "대부분의 대학원이 학점당 차등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박사과정 학생들의 경우 직장과 대학원을 겸해 학기마다 9학점씩 듣기 어려운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이 모씨는 "직장을 다니느라 4학기 이후 6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생들이 점차 발생함에 따라 신정민 총학생회장은 "올해 초 학교 측에 이야기 했지만 학기 중간에 이 논의를 지속하지 못해 이야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다"며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교 측과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학칙이 개정되도록 할 것이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학원 교학과의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의에 의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정책적 수정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자체부서만의 일이 아니다"며 "회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기자 mh705@dongguk.edu



"콜라? 콜라!" ... 생활협동조합이 오는 26일까지 상록원 식당앞에서 서적활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 교재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학교 서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1년에 2번 진행할 예정이다. 베스트셀러, 신간 등 다양한 서적이 준비되어 있다. 황주상 기자 hjsz228@dongguk.edu

동약로

상담이 필요해



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택하는 방법은 유학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은 유학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속기간이나 비자 유무에 따라 11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연구처 관계자는 어학연수나 유학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 오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도움을 청하기보다 유학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선 국제교류실에서 어학연수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 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설 유학원의 정보력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이다.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한 학생은 "학교에서 실질적인 어학연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는 어학연수 상담에 관한 학생들의 수요를 인지하고 홍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어학연수 상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경영대 임형준·박소혜 조 당선

원충, 기호 1번 김선철·정재민 조 당선

지난 16일부터 3일간 치러진 경영대 선거 결과 △임형준(경영3)·박소혜(정보관리3) 조가 총 투표율 28.2%를 보인 가운데 찬성 357표(92.25%), 반대 18표(4.65%), 무효 12표(3.1%)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경영대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2002년 학생총회에서 선거 시행세칙을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율'을 '투표율과 상관없이 찬성 50% 이상'으로 변경했기에 선거 투표율은 문제 제기 사안이 아니다"는 것을 대차보통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렸다.

또한 같은 날 열린 대학원총학생회 선거는 총 20.6%(232표, 경주캠퍼스 제외)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선거 결과 △기호1번=김선철(북한학과 석사2학기)·정재민(미술학과 석사2학기) 조가 153표(65.9%)를 획득, △기호2번=김경신(연극영화학과 석사2학기)·유지선(연극영화학과 석사2학기) 조가 75표(32.3%)를 획득함으로써 기호1번이 21대 대학원총학생회로 당선됐다. 한편 사법대 선거는 23일부터 3일간 학림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비정규직 시간강사' 토론회

다음달 6일 오후 6시 문화관 제3세미나실

대학원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가 다음달 6일 오후 6시 문화관 K동 제3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비정규직 시간강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현직 시간강사들과 대학원 재학생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며, 대학 내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무 조건 등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정민 총학생회장은 "정확한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은 차후 대학원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함께 토론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창과, 나희덕 시인 초청특강

오는 26일 오후 3시 M306에서 진행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문인초청특강'이 오는 26일 동국관 M306에서 오후 3시에 열린다. 나희덕 시인을 초청한 이번 강연회는 그의 최근 시집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희덕 시인은 지난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했으며 지난 98년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뿌리에게(1991)' '그 말이 있을 물들었다(1994)' '그곳이 멀지 않다(1997)' '어두워진다는 것(2001)'이 있다.

대학원 수강신청일 변경

2월초 홈페이지 공고

일반대학원 2005년 1학기 수강신청일이 다음해 2월 중순으로 변경된다. 이는 그동안 수강신청을 12월에 진행했으나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2월달로 늦춘 것이다. 자세한 수강신청일정은 다음해 2월 초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2005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모집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한시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 모집학과: 석·박사학위과정 전계열 전학과  
• 원서접수: 인터넷(2004.11.4(목)~11.11(목) 밤 12시) / 2004.11.10(수)~11.12(금)  
• 전형일: 2004.11.27(토)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gs  
대학원 교학부 02)2260-3094~5

**불교대학원**  
• 모집학과: 불교학과, 불교사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정세문화학과  
• 원서접수: 2004.11.15(월)~11.25(목)  
• 전형일: 석사과정(2004.12.11(수) 지도과정(2004.12.21(목))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bs  
불교대학원 교학부 02)2260-3097~8

**행정대학원**  
• 모집학과: 행정학과, 안보행정학과, 공인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 북한학과  
• 원서접수: 2004.11.1(월)~11.16(화)  
• 전형일: 2004.11.20(토)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pa  
행정대학원 교학부 02)2260-3101~3

**경영대학원**  
• 모집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부동산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 원서접수: 2004.11.18(목)~11.25(목)  
• 전형일: 2004.11.27(토)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ba  
경영대학원 교학부 02)2260-3106~7

**교육대학원**  
• 모집전공: 교육학 석사과정, 유아교육 석사과정, 초등교육 석사과정, 교육정책 석사과정, 교육철학 석사과정, 교육심리 석사과정, 교육사회학 석사과정, 교육행정 석사과정, 교육평가 석사과정, 교육공학 석사과정  
• 원서접수: 2004.11.15(월)~11.19(금)  
• 전형일: 2004.12.4(토)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edu  
교육대학원 교학부 02)2260-3110~1

**언론정보대학원**  
• 모집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출판편집학과, 정보관리학과  
• 원서접수: 2004.11.8(월)~11.23(화)  
• 전형일: 2004.11.24(수), 27(토), 29(월) 총 3차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ci  
언론정보대학원 교학부 02)2260-3722~3

**신입대학원**  
• 모집학과: 건설·환경공학, 식품·화학공학과, 컴퓨터·전자·정보통신공학과, 디자인·경영공학과  
• 원서접수: 2004.11.17(수)~11.30(목)  
• 전형일: 2004.12.4(토)  
• 홈페이지: http://gsite.dongguk.ac.kr  
신입대학원 교학부 02)2260-3603~4

**문화예술대학원**  
• 모집학과: 문예창작학과, 공연영상예술학과, 불교예술학과, 예술경영학과, 예술치료학과  
• 원서접수: 2004.11.8(월)~11.16(화)  
• 전형일: 2004.11.20(토)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ca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 02)2260-3606~7

**국제정보대학원**  
• 모집학과: 정보보호학과, IT-Business학과, 영어통·번역학과  
• 원서접수: 2004.11.15(월)~11.23(화)  
• 전형일: 2004.11.26(금)  
• 홈페이지: http://ia.dongguk.ac.kr/~ia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 02)2260-3731~3

**불교문화대학원**  
• 모집학과: 불교학과, 불교예술학과, 인간학과  
• 원서접수: 2004.11.8(월)~11.18(목)  
• 전형일: 2004.11.20(토)  
• 홈페이지: http://gsbc.dongguk.ac.kr  
불교문화대학원 교학부 054)770-2393~5

**사회과학대학원**  
• 모집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체육학과  
• 원서접수: 2004.11.29(월)~12.10(금)  
• 전형일: 2004.12.11(토)  
• 홈페이지: http://www.dongguk.ac.kr  
사회과학대학원 교학부 054)770-2093~4



# 공간확충 · 산학협력 강화 등 발전기반 마련

## 학교 · 학생회 관계, 서로 신뢰 바탕으로 회복해야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지난 5월 교육역량 강화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기획 전담기구인 교육기획단이 T/F 팀으로 구성됐다. 교육기획단은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지성인으로서의 인성 함양을 목표로 2005학년도 교양교육운영과정 개편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기획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교생태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에코포럼을 발족했으며 매달 정례 에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공간을 확충하고 교원을 대규모로 충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적 토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성화사업**  
지난 5월 본교의 '2004학년도 대학 특성화분야'에 △국어문학 · 문예창작학과 △반도체과학과 △경주캠 관광경영학과가 선정됐다. 이는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실시된 지원사업으로서 본교는 앞으로도 10개 내외의 학문 분야를 경쟁력 있는 분야로 성장시키기 위해 특성화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9월 교육부가 수도권대학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2004년도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에 제출한 '충무로 · 강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영상 CC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사업이 아쉽게 탈락함으로써 본교 특성화 지원 사업에 적신호가 나타났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부터 3~5년간 다년도 특성화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길게는 5년 동안 150여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못받게 된다. 이에 본교는 내년 신청할 사업분야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영상문화콘텐츠분야와 인재양성'으로 선정하되 이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특성화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산학협력활성화**  
본교는 농협중앙회(회장=이대근)와 지난 2월 25일 의료 및 문화 · 복지사업과 교육 · 연구 분야의 산학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3월 30일 장 · 단기 협력사업 추진구상을 발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 5~6월 개원 예정인 일산 불교병원개원에 필요한 200여명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더불어 양 · 한방협진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의료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농촌지역의 문화 · 복지 사업도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본교를 비롯한 서울 중남부 지역 8개대학과 서울시가 시장발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조인했다. 이번 조인식에서 본교는 서울시 시정 개발 및 지역 혁신 분야 파트너십 체결,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력 교류, 지역 산업체에 대한 공동지원등의 내용으

로 협력관계 수립을 체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산 · 학 · 연 · 정 협력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병원개원준비**  
지난 9월 6일 교육부가 불교병원을 교육용 부지로 승인하고 9월 20일에는 일산불교병원장으로서 이석현 전 고려대 구로병원장이 선임됨에 따라 불교병원 개원준비가 가속화됐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경영방침으로 세워 특정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우수한 의료진을 채용하려고 노력중이며 순익분기점은 개원 후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개원하지 못할 경우 건물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 3,40억의 손해를 입는 만큼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05년 5월 즈음에는 반드시 개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과의 관계**  
올 초 현재 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시작으로 상임이사제가 도입되는 등 법인이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던 한해였다.

전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은 만장일치로 학교법인 제2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오는 2006년 5월 17일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상임이사제 도입은 지난 9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영배스님이 상임이사로 선출돼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또한 비전인공회원과 계약직 직원 등의 일부 인사면적이 이사장으로부터 총장에게로 위임돼 총장 권한이 강화된 것도 주요 사항이다.

**학교 · 학생회간의 관계**  
올해부터 학교와 학생회는 '등록금 협의'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는 문제를 시작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우선 지난 2004년도 1학기 등록금이 7%인상 고지됨에 따라 학교측은 학생회 측과 협의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교육환경 개선, 물가인상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입장과 학생회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요인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 서로 맞서며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 학생회는 본관점거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됐으며 본관점거 중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서로간의 불신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지난 5월 총학은 '총장과 의 면담자리 약속'을 전제로 38일만에 점거해제를 하며 학교와 학생회간의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총학은 점거 중 '불교병원에 교비사용'에 관련한 문서를 입수하게 되었고 교육부에 감사 조치를 요청했다. 이 결과 총 341억원의 교비환수조치가 내려졌으며 우선 법인 재산 가운데 100여원을 학교 세입으로 2005년 2월까지 환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6년 12월까지 학교세입으로 회계조치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달 있었던 '제37대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없어 내년 3월에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주상 · 김지희 기자  
dgupress@dongguk.edu

## 본사가 예상하는 2005학년도 핫이슈 5

**1. 일산불교병원 개원**  
일산불교병원이 드디어 다음해 5월 즈음 개원할 예정이다. 불교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매머드급 종합병원으로서 양 · 한방협진과 의료전문화화를 통해 경영차별화전략을 세웠다. 지난 1998년 병원건립을 확정된 후 8년 만에 개원하는 불교병원의 책임경영진은 초기에는 450병상, 2년 후에는 844병상 모두를 운영해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이 애초 예상보다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이미지가 실추됐고 교통여건 역시 불편해 2년 안으로 흑자경영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건학 99주년**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업무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선각자들이 우리학교를 건립한지 99년째가 되는 2005년도는 건학 100주년 준비사업이 정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건학에 헌신한 선각자 찾기와 흉상 건립 △'동대 백년사' 편찬 △국제학술대회 개최 △100주년 기념관 건립 △건학 100주년 우표 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학생서포터즈' 활동을 본격화하고 대동제와 100주년 기념사업을 연계한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3. 공간확충과 기숙사건립**  
내년 초에는 필동병원 리모델링 착공과 구도서관 리모델링 완공이 예정돼 있어 공간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구도서관 리모델링 완공에 따라 법대와 불교대가 이전하는 등 우리학교 전체적인 공간구조가 개편되고 필동병원 공간활용 방안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동병원과 제3캠퍼스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가능성도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특성화사업**  
교육부는 2005년에 다년간 150여억원을 지급하는 특성화지원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우리학교도 특성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교원확보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특성화사업 당락의 열쇠가 되는 정원감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학내구성원간의 의견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년이 될 듯하다.

**5. 교육강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측의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먼저 교양교육과정 연구 · 개발하고자 교양교육원을, 어학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교육원을 신설하는 행정조직개편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교육기획단은 장기적으로 학습량을 증진시키고 강의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육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 공간확충

우리학교는 강의실과 연구실 등의 공간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중앙대부속 필동병원을 인수한 것은 '가름 속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필동병원은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인수될 예정이며 리모델링 착공은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필동병원은 4,800평에 달하는 공간으로 공간확충 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학교홍보와 교육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간은 현재 공간연구실무소위원회를 통해 △로스쿨 △연구공간 △기숙사 등의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3월 착공됐으며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불교대 △법대 등이 이전하고 교수 연구실과 열람실이 확충되면서 공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강화사업

홍기삼 총장은 취임 후부터 '교육강화'를 학교경영의



지난 2월 본교가 매입한 중대필동병원



지난 3월 진행된 총학생회 본관점거

## 2005학년도 1학기 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2005학년도 1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장학금(장학금)에:**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양장학금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신입생장학, 보훈장학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2.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가. 2004-2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졸업학점이 120인 경우는 15학점),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 · 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5-1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 3. 신청기간:** 2004. 11. 15(월) ~ 30(화)
- 4. 신청장소:** 해당 학업지도교수
- 5. 신청방법:**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6. 신청서 평가기준:**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50점  
나. 사회봉사: 10점  
다. 가정형편: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2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대학 교학부에 문의바람.
- 7. 제출서류:**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부에 제출함.  
2) 동국봉사활동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점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증명서(졸업 시 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 세목별(미)과세증명서: 부모 각각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라. 기타 가정형편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점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학 생 처

## 2005학년도 1학기 복학 · 재입학 안내 (1차)

- 1. 복학**  
가. 접수일자: 2004. 11. 29(월) - 12. 1(수)  
나.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복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군복학자: 복학원서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가 기재된것 1부  
(※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 2005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중 2학년 복학예정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의사항: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이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됩니다.
- 2. 재입학**  
가. 접수일자: 2004. 11. 29(월) - 12. 1(수)  
나. 등록일자: 2004. 12. 6(월) - 12. 8(수) 교내 제일은행 (※ 미등록시 재입학이 취소됨.)  
다. 재입학 대상자: 퇴학 및 학사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5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사징계제적자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가능합니다.  
라. 구비서류: 재입학원서 1부.  
마. 유의사항: 재입학은 학과 및 전공에 잔여여력이 없을 경우 급학이 재입학 불가능합니다.
- 3. 접수장소: 소속단과대학 교학과**

교 무 처

## 2005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1차)

- 1.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2004. 12. 6(월) - 12. 8(수)  
나. 접수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다. 휴학 대상자: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  
라. 신청서류  
(1) 일반휴학신청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1부.  
(2) 휴학연장서: 휴학연장서 휴학연장원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마. 유의사항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중산하여 6학 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제적됩니다.
- 2. 군인영 휴학**  
가. 접수일자: 상시 (군인영 통지서 수령시부터 입학예정 까지)  
나. 접수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다. 제출서류: 군인영통지서 사본, 군인영휴학원 각 1부.  
라. 유의사항  
(1) 일반휴학기간에 군인영휴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시 군인영 휴학원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군인영휴학자는 입학일부터 휴학합니다.  
(3) 군인영 휴학자라도 학기 2/3이상부터는 해당학기가 인정됩니다.  
(4) 군인영 휴학전 반드시 개별 시험을 치르고 해당학기 성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성적 미 취득시 성적경고입니다.  
(6) 군인영휴학으로 성적정정기간에 성적정정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 영원히 푸른

# 고전의 古典

고전(古典)은 시대를 초월해 오랜 세월이 걸쳐 널리 애독되는 걸작을 일컫는다. 이런 고전은 일시적으로 기록을 끄는 작품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아 본고에서도 지난 2003학년도부터 고전관련 강좌를 매학기 개설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분야별 교수들에게 고전작품을 추천 받아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 ■ 사회과학 - 전쟁론

### 격동의 인류사 속 전쟁을 정치학·철학의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논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류 역사의 전환점에는 항상 전쟁이 존재하여 왔다. 타임머신의 시점을 멀리 고대(古代)로 맞출 필요도 없이 근대 국제체제의 호시라고 지칭되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 이후 현재까지 국제체제의 변화과정을 보더라도 그 변화의 계기는 항상 전쟁으로부터 비롯되어 왔다. 또한 혹자는 인류문명의 진보를 담보해 준 과학기술의 발전도 전쟁을 통해서 촉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인류와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이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고전으로

대표적인 것이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Vom Kriege)이다. 클라우제비츠는 1780년에 프로이센에서 출생하였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12살의 어린 나이로 프로이센 군대에 입대해 1831년 11월 16일 콜레라에 감염되어 병사(病死)할 때까지 줄곧 군인으로 살았다. 그의 '전쟁론'(1833)은 25년간 참여하였던 크고 작은 실전 경험과 12년간에 걸친 꾸준한 연구·사색의 결실판으로서 그가 병사한 후 정리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되었다. 그 후 1873년 영어판의 출간을 시작으로 러시아어·이탈리아어·헝가리어·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총 8편으로 구성되

- 글 쓰는 순서
- 1. 문학
- 2. 인문과학
- 3.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법학
- 4. 자연과학  
수학  
생태학

어 있는데, 그것들은 제1편 전쟁의 본질, 제2편 전쟁이론, 제3편 전략, 제4편 전투, 제5편 전투력, 제6편 방어, 제7편 공격, 그리고 제8편 전쟁계획 등이다. 총 8편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전쟁론'은 군사전략 및 전술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전쟁론'은 직업군인, 군사전략가, 군사학 전공자 등 군사활동의 실무를 담당하는 특정인들의 전문서적으로 취급받아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제1편 전쟁의 본질과 제2편 전쟁이론은 인류역사의 보편적 현상인 전쟁을 학문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함으로써 국제정치사상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구이다. 피아간의 정치적 교섭의 지속이며 정치적 교섭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그리고 "전쟁은 전적으로 오성(悟性)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통하여, 정치적 도구로서의 종속적 성격"을 갖는다는 명제들을 통하여 전쟁의 분석수준을 철학과 정치학 등으로 확장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 수행시에는 상대국의 정치적 목적, 국제체제와 타국과의 관계, 상대국의 정부와 국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상대국의 영토·국민·산업 등을 모든 공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면전 개념은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의 '전쟁론'이 재평가 받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인류사에 있어서 전쟁이 변화와 진보의 길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전쟁에 대한 공포에 두려워해 왔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기본적으로 살상과 파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종교·인종 갈등 등에 따른 지역전쟁, 테러리즘의 만연과 이에 대한 예방전쟁 등은 전쟁에 대한 현대인들의 공포를 더욱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우리가 한번쯤은 음미해보아야 할 고전이 아닐까 싶다.

백성호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여링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목적을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제적인 면을, 법의 학문적 인식보다는 법이 그 마지막 힘을 다해야만 한다는 견해, 즉 법의 의식을 주장하는 용감하고 확고부동한 태도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로티우스(Grotius)가 1625년에 라틴어로 출간한 책으로 전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그 때 일어났던 종교전쟁의 비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간의 이성애 의거한 보편인류법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였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자연법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범죄와 형벌(Dei delicti e delle pene) 이탈리아 형법학자인 베카리아(Beccaria)가 1764년에 저술한 책으로 당시의 전제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 제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죄형법정주의, 사형폐지, 고문금지 등을 주장하였다.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몽테스키외(Montesquieu)가 1748년에 저

## ■ 사회과학 - '권리를 위한 투쟁' 외 5권

### 법의식 키워주는 고전의 가치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법문서 소개

술한 책으로 인간에게 받아들여진 모든 제도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사회적 사실에 대한 실증과학을 창설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민족의 사회와 역사는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로서의 법칙의 규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고대법(The ancient law) 영국의 법학자·사회학자인 메인(Maine)이 1861년에 저술한 책으로 비교법적, 역사적 방법에 의하여 헌법법과 로마법 등 상이한 법체계를 비교하여 진화법칙을 주장하였으며, 역사법학의 고전으로 정평이 나 있다. 통치이론(Two treaties of government) 영국의 정치사상가 로크(Locke)가 1689년에 저술한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입법권이 행정권의 우위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의 지배와 의회민주주의의

근대적 원리를 확립하였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계약으로 합의한 목적에 대하여 파괴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혁명을 인정하여 명예혁명을 정당화하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책은 이른바 오래된 '고전'이나, 비교적 최근에 저술된 것으로 추천할 만한 책으로는 켈젠(Kelsen)의 '순수법학(1943)' 하트(Hart)의 '법의 개념(1961)' 푸코(Foucault)의 '감시와 처벌(1975)' 다이스(Dicey)의 '영국헌법론(1885)' 등이 있다. 모두 읽기가 그리 쉬운 책은 아니지만, 의지만 있다면 힘들게 읽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들이다.



김태명  
법대 법학과 교수

## ■ 자연과학 - 페르마(Fermat)의 마지막 정리

### 350년간 계속된 '수수께끼' 풀기 수학 전 분야 동원한 지적 도전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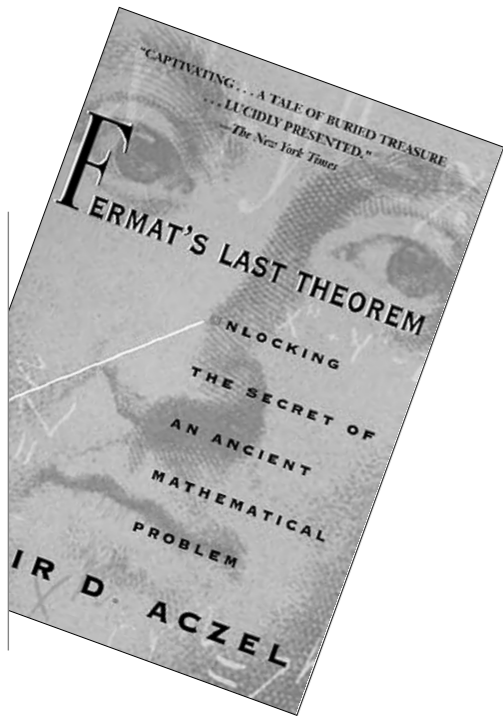
1993년 7월24일자 뉴욕 타임즈는 첫 면에 프린스턴 대학의 앤드류 와일즈(Andrew Wiles) 교수가 마침내 오래된 수학의 수수께끼인 페르마(Fermat)의 마지막 정리가 풀렸다고 보도했으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와일즈 교수를 수학세계의 용을 죽였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른 분야의 과학에서의 발견과 발명은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이나 방송이 앞 다퉈 보도하지만 수학세계의 발견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중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페르마(Fermat)는 1601년 프랑스 투루즈에서 태어난 법률가이면서 아마추어 수학자였는데 그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으므로, 그가 발견한 정리와 증명을 출간하지 않았으며 뉴턴(Newton)과 라이프니츠(Leibnitz)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미적분학을 그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그는 1637년경에 그가 소장한 수학책의 귀퉁이에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 $x^n + y^n = z^n$ 은  $n$ 이 3보다 크면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 y, z$ 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몇지게 증명할 수 있으나 충분한 여백이 없다." 와일즈 교수의 증명이 작은 오류가 있음이 곧 발견되어 실제로 증명이 성공한 해는 1995년이지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350년이 경과되었으며, 페르마가 충분하지 않다는 여백은 실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지극히 어려운 수학의 정리들을 채워져야만 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세변의 길이가  $x, y, z$ 이면  $x^2 + y^2 = z^2$ 이고, 특히  $x=3, y=4, z=5$ 이면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집트인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사실 페르마의 정리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수수

께기로 전해내려 왔다고 볼 수 있다. 혹시 이런 수수께끼의 해결이 신문 첫 면에 보도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 것일까? 어쨌든 페르마의 가설은 350년 동안 동시대의 최고 지성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충분한 마력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천재 한 사람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큰 퍼즐이었다. 물론 초창기의 진도는 꽤나 더디었다. 첫 200년 동안  $n=3, 4, 5, 6$  그리고 7일 때 페르마의 정리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 후 100년 동안 오일러(Euler), 제르맹(Germain), 디리클레(Dirichlet), 쿨머(Kummer) 등의 연구는 지난 50년 동안의 문제해결의 진전에 밑바탕이 되었다. 와일즈 교수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을 완성했지만, 이것은 현대 수학자들의 공동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955년도 경에 타원곡선에 관한 일본인 수학자 시무라-다니아마(Shimura-Taniyama)의 가설이 발표된다. 1984년 독일의 수학자 후레이(Frey)는 학술회에서 시무라-다니아마의 가설이 성립하면 페르마의 대정리가 성립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고 또 많은 수학자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곧 버클리 대학의 리버트(Ribet) 교수는 시

무라-다니아마의 가설이 성립하면 페르마의 정리가 성립한다고 증명한다. 그러나 시무라-다니아마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으므로 페르마의 정리가 증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와일즈 교수는 특별한 타원곡선인 경우 시무라-다니아마의 가설이 성립하고 이것이면 페르마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밝혀냄으로써 350년간의 퍼즐을 마침내 푼 것이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수학의 한 분야인 정수론의 문제이지만 이것을 해결하는데 수학의 전 분야,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등이 동원되어야 했으며, 각기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수학자들의 협동이 없었으면 증명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와일즈 교수는 피라미드의 마지막 돌을 아주 어렵게 찾아내어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올려놓았다고나 표현할까? Amir D. Aczel 이 쓴 "Fermat's Last Theorem. Four Walls Eight Walls 출간"에 소개된 내용은 페르마 정리를 중심으로 한 지적 역사의 발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방현수  
이과대 수학과 교수



態라고 하는 용어가 생물이 전제된 생태학의 의미에는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학자인 이도원 교수는 생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았는데, 동양에서 의미하는 생태라는 의미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냄', '생동적인 모습', '생물의 생리특성과 어우러진 생활습성'이라고 정의한 중국문헌을 발견하고, 생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과 그 주변 환경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생태적인 것과 같은 미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생태라는 단어에는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기계적인 생태의 개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유진 오덤의 '생태학'은 생태학 분야의 유명한 교과서이다. 이 책은 앞에서 살펴본 생태에 대한 동양적인 깊은 의미는 없지만 생태학의 지평을 학문적으로는 사회학 분야, 공간적 범위로는 지구 차원까지 확장한 책이다.

## ■ 자연과학 - 생태학

### Ecology 지평 확장한 '생태학 교과서' 환경 이해 위한 생태학적 해답 제시

이 책의 저자인 유진 오덤의 동생 역시 유명한 생태학자이며, 아버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를 주창한 사회학 교수였다. 이 형제들은 부친의 영향을 받아 사회학과 생태학을 연결하는 주제에 관한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이들이 저술한 생태학 관련 책들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생태학도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생태학'은 1995년 이도원 교수에 의해 국내 최초로 번역되어 소개된 책이다. 생태학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양서로 읽을 수 있도록 비교적 편안하게 생태학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유진 오덤은 생태학과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연계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학문들이 탄생할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환경경제학, 환경윤리학, 불교생태학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생태학과 접목되어 여러 가지 학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이 가장 큰 화두가 된 오늘날, 환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태학적인 해답을 유진 오덤은 '생태학'에서 자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환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적극 추천한다.



오충현  
생명자원과학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요즘 생태 또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생태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사용된 것은 불과 10년 안팎의 일이다. 필자가 생태학을 공부하던 1980년대 중반에는 전공을 생태학이라고 소개하면 우스갯소리로 생태와 동태의 차이가 무엇인가고 물을 정도로 생태학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학문이었다.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1869년 독일의 과학자 헤겔이 최초로 사용했다. 그는 생태학이라는 용어로 'ecology'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집'이라는 의미인 'oikos'와 학문이라는 의미인 'logos'의 합성어이다. 단순히 단어적인 의미만을 고려하면 ecology란 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오해받기 쉽다. 헤겔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라는 의미와는 통렬하게 집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로 ecology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생물만을 국한하여 연구하지 않고, 생물과 그 집의 역할을 하는 주변 환경을 함께 연구한다는 의미를 용어에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도 ecology라고 하는 서구의 용어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생태(生

## 인문과학부문 장원 요약

존재의 증명'으로서의 글쓰기 - 이청준론  
- '전짓불의 공포'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

작가 이청준에게 있어 소설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청준의 이전 세대인 50년대의 전후세대는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는 감수성이나 현실 인식 능력이 50년대 이전 구세대에 비해 뛰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문학적인 대응 역시 탁월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야 전쟁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객관적 거리를 두고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작가가 바로 이청준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방해를 입었을 때, 그 의지는 결코 은폐되거나 망각되지 않고 환상 속에서 끈질기게 재생되거나 다른 형태를 통해 변형된다. 작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독자들에게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게 하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개인과 현실과의 직접적 대립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자아의 진실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작가가 소설 속에 구현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세상과의 싸움과 자기와의 싸움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삶이나 세상에 대한 진정한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우선 정직하게 자기와의 싸움, 즉 반성을 통해 의미 있는 창조성을 도모해보겠다는 것이다.

거기서 출발하되,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지평은 개인의 진

실과 집단의 꿈이 화해롭게 조화를 이루는 세계이다. 이런 작가는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보인다. 즉, 그가 찾아나서는 '새로운 이념의 문'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벽'을 옮겨, 충분히 성찰하지 않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뚜렷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예리한 성찰을 통해 이상을 꿈꾸는 이청준의 사유방식은 상당히 변증법적이다.

주로 6·25에 얽힌 공포에 대한 원형적 체험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이청준의 초기 텍스트들이 오늘날의 독자에게 어떤 문화적 텍스트로 어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 현재에도 '전짓불'은 그 외형만 변화해 왔을 뿐 계속 존재한다. 또한 자기 진술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욕구이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의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작가·희자·독자가 동반의 관점으로 문제를 살피기를 풀어내고, 자아 탐색을 통해 어떤 확정적 진실을 얻고자 하거나 그 탐색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 개개인에게 유의미한 방향으로 독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유의미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 수상소감

## 문학을 통해 꿈꾸는 자유

얼마 전,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과제를 작성한 기억이 난다. 사전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는 자유는 너무도 '뻔한' 것이라 유의미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자유를 보고자 만해 한용운 님의 시, '님의 침묵'과 자유를 연결해 보았다. 내가 보는 자유란, 어디에나 있는 듯 하면서 어디에도 없는 '님'과 같은 존재였다. 자유 역시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회적 제약 안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기에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완벽한 자유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디에도 없는 듯 하지만 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다는 믿음처럼, 자유는 우리 곁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기에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란 것이 누구에게나 전제된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유를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역설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것처럼 다른 방식이지만 작가 이청준도 역설적인 방법으로 참된 '자유'를 꿈꾸고 있다.

그가 꾸는 '억압 없는 자유의 꿈', 작가를 알아가고 논문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문학을 통해 실현되는 자유의 꿈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꿈은 매우 미약해보이지만 독자들이 작가, 화자와 함께 작품을 풀어나가는 동반의 작업을 통해서 공몽의 꿈으로 확대될 수 있다.

독자들도 즐기고 통해서나마 함께 그 꿈을 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조금이나마 여러 독자들에게 이청준의 작품이 각각의 유의미한 텍스트로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허아영 (사범대 국교3)

\* 본사 홈페이지(http://dgupress.com)에서 당선작품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인문과학부문 가작 요약

## 陶淵明의 作品에 나타난 老莊思想

노장사상은 일종의 난세(亂世)의 산물로, 원시적 무욕상태(無慾狀態)에 돌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진실한 인성을 추구하여 의식상으로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도피하였다.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도연명의 시를 문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도연명은 관리생활을 청산하고 전원생활을 시작하여 전원 속에 융화된 인간을 추구하는 데 모든 창작의 정열을 바치고 이를 시에 반영하였다. 문장의 수사를 중요시하던 당시 귀족적인 문학조류 속에서, 도연명처럼 개인의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순수한 본연을 추구한 것은 파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연명은 중국 문학사상에 수운을 한 단계 높이고, 후인들의 자연시를 위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대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연명의 시에 나타난 노장사상으로서, 시속에 반영된 노장사상의 사상적인 요소인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진(眞), 자연(自然), 본체회귀(本體回歸) 3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노장사상의 언어의 관계성을 설명한 언외상징(言外象徵)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첫째로 '진(眞)'은 도연명의

시 '관동(勸農)' 1장에서 말한 '포박함진(抱朴含眞)'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는 시에다가 사신과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순박순진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자연에서 무위자연(無爲自然)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자연(自然)'과 '본체회귀(本體回歸)'는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겨 스스로 그렇게 만물을 생성 변화케 하는 즉,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의 결정체인 도(道)를 따를 것을 당부한다.

도연명의 시(詩) '음주(飲酒)'에 묘사 되어 있는 노장사상(老莊思想)은 시적 언어(詩的 言語)로 말할 수 있는 '언외상징(言外象徵)'의 관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언외상징'은 위진(魏晉) 현학(玄學)의 기본명제인 '언외지변(言外支辨)' 즉, 뜻을 얻을 때 시(詩)의 언(言)과 형상(象)을 있게 되는 일종의 융합된 체험경지라고 할 수 있다. 도연명의 시구의 형상은 대부분 구체적인 실재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연명의 생활과 마음의 비유로서 뚜렷한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혜진 (문과대 철학4)



왼쪽부터 자연과학부 가작 김종원(정보통신공4), 윤하나(희4), 인문과학부 장원 허아영(국교3), 사회과학부 장원 조현민(호텔경영4), 인문과학부 가작 김혜진(철4), 사회과학부 가작 임성환(지교4), 김준(지교3) 군.

## 심사평

## 인문과학부문

## 정연한 분석과 차분한 서술 돋보여

작가 이청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의 병을 발견하고 이 병의 원인을 탐문해 가는 고고학이다.

나의 병은 우리의 병이기도 하다. 넓게는 우주적이고 좁게는 사회역사적이다. 그렇기에 나의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토대이자 발판이다. 논자는 이 점을 도출하기 위해 청준의 초기작품인 '퇴원', '병신과 머저리', '소문의 벽'을 각각 "있고 있던 자아 찾기", "아름 극복을 위한 소설 쓰기",

"자기 진술로서의 글쓰기"로 이해하면서 훌륭하게 분석했다. 논자의 결론대로 이청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사회적 현실에 맞서 저항하는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탐색하여 오랫동안 억압했던 상처를 발견하고 극복하는 과정이다.

논자의 정연한 분석과 차분한 서술을 높이 사면서 이 논문을 당선작으로 추천한다.

박인성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 사회과학부문

## 다양한 노력 보여준 연구방법 높이 평가

이번 동대학술상 사회과학분야의 장원으로 '외식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인식변화-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뽑았다. 이 논문은 가족의 생활주기를 자녀의 성장에 따라 4주기로 나눈 다음 외식업소에서 제공하는 품질에 대한 평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시간적으로 2001년과 2004년이라는 두 번의 조사 시기를 선택하고 공간적으로 서울과 경주지역이라는 두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일원변량 분석이라는 통계기법을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외식업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 웰빙비라프과 함께 건강추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어린 자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선호하는 가족단위의 소비자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으로는 '서술시 중구 지역혁신역량 제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선택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외의 중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인쇄업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을 심층 면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노력이 눈에 띄는 논문이다.

곽대경 (사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자연과학부문

## 첨단주제 선정 ... 기술변화 방향 가능케 해

한발 앞서가는 기술에 의하여 우리 생활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 핸드폰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생각하면 짐작이 쉽다. 그러므로 기술 변화를 유도하고 예견하는 일은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많은 창의적 과학기술 개념과 이론은 주로 젊은 사이언티스트와 테크노로스트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그런 관점에서 학부학생들의 신선한 사고에 기초한 동대학술상의 역할은 크다. 이번에 자연과학 부문에 출품된 연구 주제들도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아이티, 비터 분야의 정보통신과 유전자에 관

한 첨단 주제로서 우리의 기술 변화 방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신사 결과, 이번에 장원은 내지 못하고 가작으로 두 편이 선정되었다. 논문주제의 설명력, 이론적 및 논문 짜임새가 다소 부족했다는 소견 때문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아쉬웠다. 주제, 연구의욕, 신선함은 평가받을 만 하였다. 기술은 소수의 우수한 젊은이들의 집중력에 의존하며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출품하신 분들께 감사한다.

김병식 (공과대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 자연과학부문 가작 I 요약

## 무선랜과 홈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최근 유비쿼터스 시대의 출현으로 가정 내에서 정보 기기와 가전을 하나로 묶는 홈네트워킹과 같은 형태의 사업 및 관련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그와 관련, 무선랜과 홈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그에 따른 기술적인 이해와 시장 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동향을 전망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자 이번 연구를 계획했다. 또한, 원론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홈네트워크와 관련해 틈새시장 사업제안을 덧붙였다.

홈네트워크는 무선랜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홈네트워크는 기존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신업계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컴퓨터 업계는 정보 기기의 부활로 가전 업계는 컴퓨터를 넘어서는 첨단 기기로의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화 완료시기에 따라 이 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무선 기술이 안정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엄청난 규모의 시

임성환 (사범대 지리교육4)

김 준 (사범대 지리교육3)

## 사회과학부문 장원 요약

외식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인식변화  
-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

외식산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외식 유통의 증가로 이어졌고, 경기불황에도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 중 특히 가족과 함께 할 때 그 가족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외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품질 중에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속성에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기존 현재 시점의 레스토랑의 품질조사, 고객만족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인식하는 품질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연구로 레스토랑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와 가족생활주기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Parasuraman 등(1985)의 SERV QUAL에 쓰인 측정 문항 22가지 기준의 문항에서 추가하여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전체 문항은 5점 Likert-type으로 조사하여 서울, 광주 지역에서 2001년, 2004년 조사하였으며, SPSS Win 10.0으로 전산 처리 하였다. 요인별 유의성 검증은

위해서 ANOVA를 실행한 결과 '건강추구', '유행성', '안전성', '음식 관리', '심리적, 지리적 접근성', '영업의 신뢰성', '인적서비스', '이용 편리성', '음식외형' 9가지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총 9개의 요인 중 '건강(Health)추구'에 대한 인식이 2001년과 2004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두면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나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 비해 전 가족주기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식업체는 경쟁적인 외식환경 속에서 가격할인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품질향상정책과 함께 건강이나 웰빙(Well-being)으로한 고품격마케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시사한다.

'유행성' 요인은 2001년, 2004년 모두에서 어린 가족과 함께 동반하는 외식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자녀와 함께 동반하는 가족을 타겟으로 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이들을 자녀를 배려하는 시설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2001년, 2004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음식관리' 요인이 꼽혔다.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맛, 위생적 관리 상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수상소감

## 외식업체들에게 미래대응 제언 뿌듯

대학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제야 비로소 전공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이해를 할 즈음에 이런 도전의 자리를 통한 성취감을 함께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논문은 주5일제 근무 정착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 여성사회진출로 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족단위 고객의 특성에 따른 인식조사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가족을 생활 주기 별로 4주기로 나누어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할 때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품질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에서 특히 가치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웰빙(Well-being)에 힘입어 '건강성' 요인이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가격할인정책 외에 품질향상과 더불어 고품격 마케팅도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가족이 함께 외식할 때,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이들을 자녀를 고려한 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마지막으로 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식의 맛,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외식업체들이 가족단위의 고객이 많아질 미래에 대응하는데 제언을 하였고도 생각한다.

이번 논문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산발적으로 맺도는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생각을 체계화시켜주장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고,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주었다.

조현민 (관광대 호텔경영4)

## 자연과학부문 가작 II 요약

## Cloning and Expression of gene encoding the E-cadherin epitope

Object : E-cadherin은 거의 모든 상피 세포에 존재하는 transmembrane protein으로서 세포질 영역, 세포 외 영역, 그리고 막간 영역으로 구성되며 calcium의존적으로 세포 부착에 관여한다. E-cadherin은 특히 종양세포의 침습을 억제하는 특성을 갖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암에서는 E-cadherin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현이 감소되거나 없어진다. 그래서 침습적이고 미분화된 병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E-cadherin의 epitope 부분을 expression시스템으로써 얻게 되는 protein을 현재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protein chip에 실거나 antibody를 제작하여 심은 후 암 환자의 serum과 반응시켜 정상 serum과 비교하여 암의 전이나 침습과 관련하여 진단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Method : E-cadherin epitope 부위를 찾아 PCR을 통하여 증폭시킨 후 cloning과정을 통해 clone을 얻는다. 얻은 clone을 sequencing하여 확인한 다음에 expression시켜 SDS-PAGE로 확인한다.

Result : PCR을 통하여 원하는 size의 band를 얻었으며, 이를 TA cloning한 후 sequencing한 결과를 target sequence와 비교해

본 결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quencing확인 후 이 sequence를 NCBI blast tool을 이용하여 protein으로 전환시 E-cadherin과 100%의 identity를 나타내었다. SDS-PAGE결과는 예상되는 size인 20-25kDa에서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

Conclusion : expression된 E-cadherin은 그것을 포함하여 그 외의 새로운 cancer marker, general tumor marker, metastatic tumor marker등을 chip에 심어 여러 cancer들을 한번에 진단 가능하도록 한 protein chip을 fabrication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Acknowledgment : 먼저 실험하는데 있어서 많은 조언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 화학과 김소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또한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많은 도움을 준 정은 언니와 연우 언니, 효선이, 상수 오빠, 광준 오빠, 나영이, 헤미이, 화정이에게 감사의 뜻 전하고 싶다. 여러분도 감싸주며 이끌어 주신 교수님과 실험실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전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윤하나 (이과대 화학4)

희곡 · 시나리오 장원 - 계절학기

등장인물  
남자, 여자, 헬레벨떡 남학생

무대  
강의실이다. 무대 우측에 커다란 칠판이 있고 칠판 앞에는 출입문이 있다. 출입문에는 4호실이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다. 칠판 좌측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교탁이, 그 뒤로 책상 세 개가 띄엄띄엄 놓여져 있다. 무대의 벽 가운데 창문이 있고 녹음을 일리는 듯 짙고 푸른 나뭇잎들이 보인다.

패미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니 텅 빈 강의실에 여자 한 명이 들어온다. 손에는 책이 잔뜩 들려져 있고 메고 있는 가방은 아주 작다. 여자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빈 강의실을 보고 한숨을 쉰다. 여자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지만 여자는 시계를 보더니 짹짹 강의를 할 때만 뒤에 있는 책상에 앉는다. 잠시 후 쿵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 서두르면서 강의실로 들어온다. 강의실에 들어온 남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행스러운 표정으로 강의실 맨 뒤에 있는 책상에 앉는다. 여자는 들어온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노트와 필기구를 꺼내고는 노트에 열심히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다. 무대 잠시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진다. 남자는 책상에 앉으려 자고 있고 여자는 계속해서 필기를 하고 있다. 여자 잠시 시계를 보더니 필기구와 노트를 챙기기 시작한다. 책상에서 일어난 여자 강의실을 나가려다가 맨 뒤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깨운다.

여자 : (남자를 특목 치며) 저기요!  
남자 : (잠에 취해 있다가 깜짝 놀라고는 침을 뉘으려는 듯 입을 주변을 훑으며) 네?  
여자 : 수업시간이 끝나가네요. 어서 일어나세요.  
남자 : (눈을 비비며) 네?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잠시 생각하다가 계속 눈을 비비며) 오늘도 역시 아무도 안 왔네요.  
여자 : (남자를 한심한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보며) 네 그렇네요. 벌써 내일이 종강인데 아무도 오지 않네요.  
남자 : (잠에서 완전히 깨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렇군요. 하긴 교수님조차 오시길 않네요.  
여자 : 그러게요. 교수님조차 오지를 않으시네요.  
남자 : (잠시 생각해 잡기다 깜짝 놀라며) 그런데 내일이 벌써 종강이라고 하셨나요?  
여자 : (다시 남자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네. 벌써 그렇게 되었는데.  
남자 : (아쉬운 듯) 그렇군요.  
여자 : 그렇죠. 한번도 수업을 한 적이 없는데 벌써 내일이 종강이네요.  
남자 : 아쉽군요. 꼭 듣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여자 :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꼭 듣고 싶은 수업이 있었어요?  
남자 : 네 그렇죠. 꼭 듣고 싶은 수업이 있죠. (강의실 청문을 쳐다보며)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수업을 들으러 학교까지 온 거죠.  
여자 : (계속해서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렇군요.  
남자 : (미소를 한번 짓더니 신나는 목소리로) 전 이 교수님의 '개미와 배짱이' 라는 연극을 정말 감명 깊게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신청했어요.  
여자 : (약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남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쳐다보더니 다시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낀다) 네에.  
남자 : (잠시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정말 감명 깊게 본 연극이었어요. 남들보다 앞서겠다고 매일같이 일만 하고 살아가는 개미를 보며 배짱이가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정말이지 제 속이 후련했거든요.  
여자 : 그렇군요. 전 아직.  
남자 : 아. "개미와 배짱이"를 보지 못하신 모양이죠?  
여자 :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당당한 목소리로) 그렇죠!  
남자 :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군요.  
여자 : (발끈하며) 왜요?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남자 : (의기소침해 표정으로) 아니요. 그냥 뭐 읊……. 제가 감동적으로 본 작품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고 생각하

니 아쉬워서 그런거죠. 죄송합니다.  
여자 : (당당한 듯 큰소리로)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죠. 사실 전 연극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연극의 이해"라 그냥 학점 따기 쉬운 과목이라 생각하고 신청한거예요.  
남자 : 그렇군요.  
여자 : 그렇죠!  
남자 : 그렇다면. (잠시 망설인다) 여자 : 네?  
남자 : 아뇨. 뭐.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더운 날에 수업을 신청 하셨어요?  
여자 :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며) 항상 계절학기를 들어 왔거든요. 일찍 졸업을 하기 위해서죠. 전 늘 남보다 앞서가고 싶으니까요.  
남자 :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듯) 늘 앞서가고 싶다면 강의실을 왜 이리 더운 날 수업에 신청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시는 거죠.  
남자 : 그거야. (당당한 목소리로) 저는 들어온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노트와 필기구를 꺼내고는 노트에 열심히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다.  
여자 : (조롱하듯이 한번 웃더니) 그럼 무대 잠시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진다. 남자는 책상에 앉으려 자고 있고 여자는 계속해서 필기를 하고 있다. 여자 잠시 시계를 보더니 필기구와 노트를 챙기기 시작한다. 책상에서 일어난 여자 강의실을 나가려다가 맨 뒤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깨운다.  
여자 : (남자를 특목 치며) 저기요!  
남자 : (잠에 취해 있다가 깜짝 놀라고는 침을 뉘으려는 듯 입을 주변을 훑으며) 네?  
여자 : 수업시간이 끝나가네요. 어서 일어나세요.  
남자 : (눈을 비비며) 네?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잠시 생각하다가 계속 눈을 비비며) 오늘도 역시 아무도 안 왔네요.  
여자 : (남자를 한심한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보며) 네 그렇네요. 벌써 내일이 종강인데 아무도 오지 않네요.  
남자 : (잠에서 완전히 깨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렇군요. 하긴 교수님조차 오시길 않네요.  
여자 : 그러게요. 교수님조차 오지를 않으시네요.  
남자 : (잠시 생각해 잡기다 깜짝 놀라며) 그런데 내일이 벌써 종강이라고 하셨나요?  
여자 : (다시 남자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네. 벌써 그렇게 되었는데.  
남자 : (아쉬운 듯) 그렇군요.  
여자 : 그렇죠. 한번도 수업을 한 적이 없는데 벌써 내일이 종강이네요.  
남자 : 아쉽군요. 꼭 듣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여자 :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꼭 듣고 싶은 수업이 있었어요?  
남자 : 네 그렇죠. 꼭 듣고 싶은 수업이 있죠. (강의실 청문을 쳐다보며)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수업을 들으러 학교까지 온 거죠.  
여자 : (계속해서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렇군요.  
남자 : (미소를 한번 짓더니 신나는 목소리로) 전 이 교수님의 "개미와 배짱이" 라는 연극을 정말 감명 깊게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신청했어요.  
여자 : (약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남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쳐다보더니 다시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낀다) 네에.  
남자 : (잠시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정말 감명 깊게 본 연극이었어요. 남들보다 앞서겠다고 매일같이 일만 하고 살아가는 개미를 보며 배짱이가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정말이지 제 속이 후련했거든요.  
여자 : 그렇군요. 전 아직.  
남자 : 아. "개미와 배짱이"를 보지 못하신 모양이죠?  
여자 :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당당한 목소리로) 그렇죠!  
남자 :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군요.  
여자 : (발끈하며) 왜요?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남자 : (의기소침해 표정으로) 아니요. 그냥 뭐 읊……. 제가 감동적으로 본 작품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고 생각하



왼쪽부터 시 장원 임세화(문창2), 소설 가작 배명은(국문4), 소설 장원 이희진(문창3), 희곡·시나리오 장원 정재문(문창3), 희곡·시나리오 가작 전한성(국문4), 시 가작 전유석(법4) 군.

잠들어서 피곤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 다음날부터는 꼬박꼬박 수업에 들어왔잖아요. 그쪽도 알다시피.  
여자 : 그럼요! 당신은 수업에 빠지지 않고 들어왔죠. 인정해줄게요.  
남자 : 고맙습니다.  
여자 : 뭐 그렇게 감사할 필요는 없죠. 당신은 그런 칭찬 정도는 들을만 했으니까요.  
남자 : (중얼거리며) 그런 칭찬이라.  
여자 : 그렇죠! 단지 그런 칭찬뿐이죠. (잠시 남자 표정을 살피며) 뭐 기분이 나쁘신가요. 사실 당신은 수업에 적극적이 못했잖아요. 매일같이 나오기는 했지만 수업이 마칠 때까지 앞뒤로 잠만 자다 갔으니까요.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다들 뭐가 다들 뭐를 골리는 것처럼 다만 부지런할 뿐인 미련한 행동이거든요.  
남자 : 그렇군요.  
여자 : 그렇죠!  
남자 : (잠시 망설이더니) 하지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자 :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남자 : 당신이 수업을 안 듣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여자 : (다소 어이가 없는 듯) 저는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어요. (듣고 있는 노트를 보여주며) 이거 봐요. 전 늘 책을 펴 놓고 수업을 준비하고, 언제나 제일 먼저 와서 칠판도 닦는다고요. 사실 저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남자 : (중얼거리며) 수업 준비라……  
여자 : 당연히 그래야죠!  
남자 : 제가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여자 : (시해를 베풀듯)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래도 당신은 늘 이 수업에 빠지지 않고 들어왔으니까요. (텅 빈 강의실을 둘러보며) 보세요. 내일 수업이 끝나는 날인데 아직 아무도 오질 않고 있잖아요.  
남자 : 심지어 교수님까지도?  
여자 : 그렇죠!  
남자 : 그렇군요!  
남자 : (그때도 당신은 어깨를 한 번 으쓱하고는) 저 다음으로 수업에 충실했던 사람이죠.  
남자 : (안심한 듯) 그렇네요.  
여자 : 그럼요!  
남자 : 다행이네요.  
여자 : (계속해서 희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남자 :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녀저나 이젠 수업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당신은 내일도 나올거고…… 교수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 오겠죠. 그렇다면 역시 내일도 우리 둘 뿐이겠군요.  
여자 : 당신 혼자만 나온다면 그렇죠.  
남자 : (중얼거리며) 둘 뿐이라……  
여자 : 그렇죠! 제가 수업에 빠지는 일은 흔하지 않거든요.  
남자 : 그렇군요.  
여자 : (깜짝 놀라며)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고요.  
남자 : (한숨을 쉬며) 그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강의 첫 날이었죠. 뭘이든 수업도 하질안고 소개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빠졌지만 후회스럽고 그렇지 않았어요. 첫날은 출석도 잘 안 부르고. 뭐 어쨌든 첫 날 수업이었으니.  
남자 : 그렇군요. 사실 저도 첫 날 수업에 안 들어왔거든요. 뭐 괜찮다고 싶었죠. 설마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의 수업인데 수강한 학생이 적어서 폐강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날은 괜히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사실 날씨도 너무 덥고 그 전 날 늦게

여자 : 그쪽 말이예요. 오늘은 그래도 수업을 준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보이신다고요.  
남자 : 고맙습니다.  
여자 : 뭐 그렇게 고마워 할 것은 못되죠. 그래도 즐겼던 건 사실이에요.  
남자 : 죄송합니다.  
여자 : 뭐 그렇다고 그렇게 미안해 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 당신은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 같이 수업에 상관없는 사람처럼 날부러져 잠만 자다 갔잖아요. 이렇게 턱을 괴고 고개를 저으며 잠을 쫓으려고 하더니! 팔뚝만한 성장 아닌가요?  
남자 : (속스러운 듯이) 네.  
여자 : (가볍게 박수를 한번 치며) 어제 제 말을 듣고 느끼신 바가 많으신가봐요.  
남자 : 뭐……. 네? 그런데 오늘도 아직 아무도 안 오고 있군요.  
여자 : (시계를 보며) 그렇네요. 아직 아무도 안 오고 있네요. 벌써 강의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이리다가 수업한번 없이 이리방가 끝나겠어요.  
남자 : 아쉽네요. 꼭 듣고 싶은 수업이었는데.  
여자 : 그래도 우린 한 번 밖에 결석을 하지 않았으니 학점은 잘 나올거예요.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뭐 그쪽도 잠만 자다 갔어도 다른 학생들보다 출석 점수가 좋잖아요. 시험도 한번 안 본 과목인데. 아마 저 다음으로 학점이 잘 나올걸요.  
남자 : 그렇군요.  
여자 : 그렇죠.  
남자 : 그런데 저는 학점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전 다만 이 수업이 듣고 싶었던 것뿐이거든요. "개미와 배짱이"를 볼 순간부터 이 교수님의 수업은 꼭 들으리라고 다짐을 했어요. 전 그 연극의 대사까지도 다 외우고 있거든요.  
여자 :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학점만 잘 나오면 그만인데. 뭐 수업 따위야 어쨌든 별로 상관없어요. 물론 재미있는 수업이면 당연히 더 좋지만요. 이 수업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신청한 것뿐이예요. 물론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딸 자신도 있었지요. 사실 이런 과목일수록 학점 따기가 더 쉽거든요.  
남자 : (중얼거리며) 학점 따기가 쉽다……  
여자 : 그렇죠. 다른 교양 수업과는 달리 이런 수업은 시험도 잘 안보거든요. 열심히 나와서 수업만 듣다가 가면 대개는 학점이 잘 나오기 마련이죠.  
남자 : 그렇군요.  
여자 : 그렇죠!  
남자 : 그런데 한번도 수업을 한 적이 없는데 아쉽지는 않아요.  
여자 : 이 수업 말씀이세요?  
남자 : 네 이 수업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끼리……

그때 한 학생 헬레벨떡거리며 강의실로 들어온다. 남자와 여자 일제히 책상 밑으로 숨는다. 강의실로 들어온 학생은 교실이 텅 빈 것을 보고는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가 강의실 호수를 확인하고 전화를 건다.  
헬레벨떡 남학생 : (큰소리로) 뭐라고 3층 강의실이라고 (사이) 그래 지금 내려갈게. 교수님은 아직 안 오셨겠지.  
전화를 걸어 자신이 들은 수업의 강의실을 확인한 남학생은 곧 강의실을 나간다. 남자와 여자 남학생이 나가는 것을 보고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다시 책상에 앉는다.  
남자 : 깜짝 놀랐죠?  
여자 :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난 포 수위어저지 일만 알았거든요.  
남자 : 다행이네요. 그녀저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끼리 수업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여자 : 우리끼리요?  
남자 : 그렇죠! (회유하듯) 아마 교수님께서 아닌다면 학점을 좀 더 잘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여자 :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남자 : 그렇죠! 연극을 하는 거죠. 어때요.  
여자 : (잠시 생각하더니) 뭐 나쁜 건 없네요. 대신 제가 주인공을 할게요.  
남자 :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연극을 하기로 해요.  
여자 : 그런데 어떤 것을 연극하죠. 저는 아는 연극이 없는데요.  
남자 : 당연히 '개미와 배짱이'로 해야죠.  
여자 : 그럼 이 교수님이 썼다면.  
남자 : 그렇죠! 정말 감명 깊은 연극이거든요.  
여자 : 그렇군요. 좋아요. 그럼 그걸로 하기로 해요. 이왕 하는 거 누가 볼지도 모르니깐 그럴싸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자 : 네 좋네요. 여기 제 가방에 그 연극 대본이 있어요. 전 늘 그 대본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너무 감동적으로 본 연극이어서 그런거예요. 사실 들고 다닐 필요도 없지만. 전 그 대사를 전부 외웠거든요. 그래도 그냥 한번씩 꺼내서 읽곤 하죠. 그건 외우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거든요.  
여자 : 그럼 그건 저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누가 주인공이죠. 개미인가요? 아니면 배짱이 인가요.  
남자 : 당연히 배짱이가 주인공이죠.  
여자 : 그럼 제가 배짱이를 할게요.  
남자 : 배짱이를 한다구요?  
여자 : 네 당연히 제가 주인공을 해야죠. 제가 수업에 제일 적극적으로 있었어요.  
남자 :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개미를 하면 되니까요.  
여자 : 그래요. 그럼 당신이 개미를 하고 제가 배짱이를 하죠. 그런데 배짱이는 성격이 어떤가요. 그래도 제가 주인공인데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연기를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연극도 더 좋아질테고 음 그래야 학점도 더 잘나올 거 아니에요.  
남자 : 배짱이는 음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죠.  
여자 : 음악을 좋아하는군요. 그리고요?  
남자 : 그것뿐이죠.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죠.  
여자 : 그렇군요. 그럼 성격이 어떤가요?  
남자 :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여자 : 그래요. 그랬죠.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는 그 친구가 어떤 성격이냐구요.  
남자 : 배짱이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음악만 좋아하죠. 성격을 물어보셨군요. 그래요. 배짱이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답게 느긋하고 여유를 즐긴답니다.  
여자 : 그럼 뭘 먹고 사나요. 아 맞다! 음악을 하면서 음반을 내고 콘서트를 하고 또 가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노래를 해서 주인공한테 돈도 받고 뭐 그렇게 벌어서 먹고 살겠죠. 연주회 같은 것도 하구요.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클래식 같은 거 말이예요. 전 그런 웅장한 무대에서 지휘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장면을 보고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다시 책상에 앉는다.

남자 : 깜짝 놀랐죠?  
여자 :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난 포 수위어저지 일만 알았거든요.  
남자 : 다행이네요. 그녀저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끼리 수업을 해 볼 생각은

심사평

시부문

뜨거운 분발과 각성 요구

이번 동국문학상 시 부문에 응모한 사람은 겨우 다섯 명에 불과하다. 시인 공화국으로 불리던 본교의 명성은 이미 식어버린 용암 위의 채소밭이 되어버린 것일까. 시인 지망생들의 뜨거운 분발과 차가운 각성을 요구한다. 동국 문학의 흥중이란 더 이상 구호일 수도 없고 슬 좌석의 헛된 다짐일 수는 더욱 없다.  
이 가운데 임세화의 '밧짱'은 시란 어떻게 써야하는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상의 전개가 무난하고 수사법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어 충분한 습작을 거친 작품으로 평가된다. 지나치게 관념으로 흐르지도 않으면서도 관념을 형상화하고 경험을 시화하는 능력이 돋보여 내일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당선작으로 정한다.  
전유석의 '벽'은 시적 기교나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능력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 분발이 기대된다. 이진욱의 '자리매김' 등의 작품은 구상이나 묘사는 아직 미숙하지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능력이 탁월해 시보다는 소설 창작에 힘써도 좋을 듯하다. 허선혜의 '매듭' 등의 작품은 자기 생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소재가 가공되지 못한 채 생경한 그 자체로 남아있다. 형상화에 대한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담배의 독백'의 김진선은 관념적인 표현이 시적 표현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다만 주제가 집중하는 태도는 살릴 만하다.  
교재석 (본사 주간·시법대 국어교육과 교수)

희곡 · 시나리오 부문

자신감 있는 적극적인 습작 기대

학기마다 100여명의 학생들이 희곡창작강의를 수강하여 수업에 참여하지만 응모작은 의외로 적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 결여이거나 결손 때문일 것이다.  
응모작 가운데 '안개, 섬'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있고, 문학성이 돋보이나 극적 서사와 소설적 서사를 구분하는 안목이 부족하여 지문에 의해 서사를 진행시키는 결함이 있다. 아울러 극의 서사가 대사로 진행된다는 것을 상기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인물과 시각상 애자라는 주인공은 습작자 작품에서는 피해야 하는 인물 설정이다. '계절학기'는 극적 갈등과 서사가 명확하지 않고, 극의 본질인 압축과 절제가 미흡하지만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려는 노력과 자연스러운 대사가 다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다.  
희곡과 TV드라마 및 시나리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해마다 커지고 그만큼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것을 강의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대문학상에 응모하여 좋은 결과 연기를 바란다.  
이중대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당선소감

시부문

한발 한발 감사하며 내일을 터

눈을 감고 졸타기를 하는 중이다. 발아래 줄이 흔들리고,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멈출 수도 없다. 운명의 무게를 실은 두 발이 줄을 디딘다면, 눈도 채 뜨기 전에 곤두박질 칠 테니까. 그렇게 줄곧 땀과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가 들려올 때, 이런 땀과 그런 내려오라는 말이 들려올 때, 나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았다. 그러던 중 수상소식을 들었다. 덜컥 겁이 났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들, 대전에 계신 엄마, 아빠, 할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부족한 글에 따뜻한 가르침을 주시는 여러 선생님 분들과 선화, 성림이, 하나를 비롯한 열여섯 마리 보석들, 화요일의 특별한 사람들 소설분과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한 없이 나아해지고 주저않고 있을 때 가만히 등을 토닥여주는 대전의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줄 위에서 땀기 위태로운 글을 너그럽게 읽어주신 심사위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소설같은 사람, 가난같은 사람 형래선배에게 큰 고마움과 그만큼의 미안함을 함께 전한다. 격려와 노력, 분에 넘치는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감사하며 내일 댄다.  
임세화 (예술대 문예창작2)

희곡 · 시나리오 부문

문화발전에 힘쓰는 선배들처럼

도서관에서 중국어 초급권 문제집을 펴고 강경대면서 단어를 외우고 있을 때 동대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다.  
"희곡 부문 장원 되셨거든요" 오히려 무지하게 기쁜 소식이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축하한다고 말하며 칭찬을 해주신다. 부모님께 듣는 칭찬은 언제나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  
그날 저녁 영화 '귀여워' 시사회에 갔다. VIP 시사회였다. 메스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인물들이 웅장한 극장을 가득 메웠다. 곧 대표이사, 제작자, 감독님, 출연배우들의 무대인사가 시작되었다. 배우보다 먼저 소개된 대표이사, 제작자, 감독님 모두 불과 몇 주 전에 같이 축구도 하고 밤늦게까지 술도 마셨던 선배님들이다. 시사회가 끝났다. 짹짹, 영화는 최고였다. 존경스럽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주치게 된다. 위키토키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카메라를 들고 객석을 촬영하는 사람, 극장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 사람 등등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문화발전에 힘쓰시는 모든 동대 선배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부족한 저에게 그런 선배님들께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후배가 되라는 뜻으로 준 상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한다.  
정재문 (예술대 문예창작3)

\* 본사 홈페이지(http://dgupress.com)에서 당선작품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소설 장원 - 흐르는 모래 발자국

나는 어려서부터 낙타를 기르며 자라왔어요. 사막 한 가운데서 낙타가 뜨거운 핏덩이를 쏟아내며 새끼를 낳는 모습도 보았지요. 이제 막 어미의 자궁을 뚫고 나온 새끼는 눈도 뜨기 전에 거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아 아야 합니다. 갓 태어났을 때야말로 낙타의 털은 일생에서 가장 보드랍고 윤기 있는, 최고의 한때를 보내지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낙타의 털은 거친 사막의 돌개바람과 자갈, 흄날리는 모래 알갱이들에 시달려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저들의 털은 사막의 모래 빛깔과 꼭 닮아 있어요. 낙타들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던 걸까요? 저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게 뭐죠? 사막인가요? 나고 자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본연의 터전이 그리 하나니. 낙타들에게 태생, 그 자체가 위험 같아 보여요.

아주 잘 자란 흰살하고 커다란 낙타 한 마리를 푸른 눈에 주었습니다. 곧고 나온 낙타의 뱃대끈을 넘겨주자 그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한 쪽 손에는 자그마한 열매를 조심스럽게 그러쥐고, 다른 한 쪽 손으로는 뱃대끈을 맡아쥐며 그는 내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더군요. 잠시 후, 그는 입꼬리를 윙크하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낙타 위에 올라탔어요. 때론 말보다 깊고 유용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푸른 눈의 친구들은 벌써 떠날 차비를 마치고 낙타 위에 온 상태였어요. 부락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마지마 길을 배웅했습니다. 저런지 낙타를 타고 가면서다 몸을 의틀이 뚫임없이 인사를 하면 그들은 이내 모래바람의 뒤연으로 사라져 버렸습다. 모래 장막의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던 사람들도 그들이 보이지 않자 모두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부락 근처에서 얼마 가지 못했을 텐데도 막상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 그들이 사막의 어느 수막, 어느 레그와 넓개를 건너고 있을지 가마득하기만 하더군요. 우리 속담에, '사하라에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불리한 우연만 생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행 동중 낙타 코에 쨌 케자마 끈이 끊어져 버리거나, 밧줄에 묶은 게르바 주머니가 낙타 밑 밑에서 떨어져 버린다면 하는 일이 그들에게 생기기 일할 바랄 뿐이었죠. 내가 그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정작 부족 전체가 큰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에 우리들도, 스스로의 행보에 바랄 수 있는 것들이라곤 그런 정도뿐이니까요.

내 포대의 아이들을 포함한 마을의 여자들은 모두 오글라에 반해진 물을 떠담기 위해 조금 먼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얼마 후, 남자들도 서둘러 캐러밴을 꾸렸습니다. 새로이 정착해야 할 수막지대를 탐색하려 나가는 남자들의 뒷모습은 밤급 전 길을 떠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다. 사막에서 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언제나 서로들 닮아 있습니다. 보는 이들의 눈이 닳아가는 걸까요? 만약 이번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대로 우리 부족은 뽀뽀이 흩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오아시스 출몰의 수막들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도처에 널려있던 낙타풀 지대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지금은 이렇게 빗물만이 웅덩이에 끈 물이나, 조금씩밖에 솟지 않는 오아시스 물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다. 열두 살이 되면서부터 부족 전체가 길을 떠나야 하는 큰 이동은 없었는데, 우리 너무 오래 살았나봅니다. 한 곳에서.

처음 이곳에 터를 잡던 때가 생각나요. 전에 머물던 곳에서 이동을 위해 이곳의 수막을 살펴보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비롯해 탐색을 다녀온 대다수의 남자들은 이곳이 오래 머물 곳은 아니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길어야 녀 달, 아니면 그보다도 더 빨리, 언제든 물 이 다 하면 다시 이동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머무르고, 또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영원히 썩스는 오아시스는 없기 때문이죠. 시간의 유예만이 있을 뿐이예요.

와서 본 이곳은 생각보다 수막이 넓게 자리잡고 있더군요. 운 좋게도 오아시스마저 스스로 깊어지고 있는 중이었고요. 사막에서의 일이 늘 그렇듯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군과 불운이 함께 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 둘씩 아이들 더 낳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흄집들을 비롯해 양과 낙타, 야크를 쥘 우리의 규모도 점점 늘러갔어요. 어머니는 밤급 전에 이렇게 말했습다. "우리는 한 주먹 이상의 모래를 옮겨주고 있었던 거다." 여기에 있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부려놓고 살았다는 걸 말하려는 거겠죠.

그런지가 길게 늘어지는 게 곧 발이 찾아올 것 같은요. 사람들이 돌아갈 차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겨운 기다림 끝에 언젠갈 때는 양은 얼마 되지 않네요. 어머니와 나는 머리에 물통이를 이고 모래 위에서 걸음을 빨리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내가 앞서서 물었습니다. "글쎸. 뭐 있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야 어디든……" 오후입니다. 어머니 당시는 나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수막지대를 탐색하러 간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물었겠죠. '엔체쥘 읍을까요?'

나는 다시 오지 않을 그들의 '어디로'가 궁금했던 겁니다. 나는 모래바람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던 그들의 행보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지금, 방향 없이 떠나게 될 당신과 나는 살면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열여섯 살이 되도록 나는 단 한 번도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는 그의 크고 그렇그만한 푸른 눈동자에 적잖이 놀랐습다. 커다란 물방울이 사람의 눈 안에 박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일행을 데리고 우리 부락 안으로 들어온 그는 몹시 지친 기색이었습다. 약간의 긴장과 경계 그리고 간결함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서자마

자 그 큰 눈을 겁먹이며 찬찬히 손등작과 발등작을 해보았지요. 푸른 눈의 옆에 선 두 남자들 역시, 푸른 눈을 도와 그와 같은 동작을 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내뻘는 토막팔이나 괴이한 몸짓들은 아버지는 물론, 그곳에서 푸른 눈 일행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도와줘라."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먼저 이쪽의 말을 알아들었던 듯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 웃어 보이기도 하더군요. 아마도 그들은 그 순간, '살았다'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제일 먼저 살핀 건 그들의 낙타였습니다. 아주 고되고 먼 여행길이었다는 걸 가듯없이 사라진 낙타의 흄이 말해주고 있더군요. 낙타는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어요. 꼭 지켜야 사나흘이죠. 오랜 장거리 여행으로 비축해 놓은 영양분을 다 써버리고 나면 낙타의 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 집니다. 그들의 낙타는 몹시 지쳐 있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자마자 꼭 하고 쓰러지더니 네 다리들 마구 흔들며 긴 울음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가엾던지 나도 덜컥 울음부터 나올 뻔했습니다. 낙타가 울자 우리 안에 있던 다른 짐승들도 함께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아파도 아픈 기색을 하지 않는 낙타는 죽는다. 죽는다. 단 한 번도 죽는다. 말해주지 않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죽어 없어진 낙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만히 낙타의 다리를 묶어주고 물과 먹이를 먹였지요. 그러자 몸의 팽팽이 잦아들고, 조금씩 진정이 되는 것 같더군요. 다 닳아 없어진 너석들의 발바닥에 새 천을 덧대주고, 우리들 나올 때가지도 짐승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다. 그들의 읍울한 울음으로 그날 밤 사막은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낙타는 사흘 지나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대로 저들의 낙타가 모두 죽어버리는 건 아닌지. 사막에서 낙타를 잃는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비참할 수 없는 절대 절망입니다. 차라리 당장에 물이 떨어져 버리는 게 낫겠지요. 여차피 우리 모두가 사막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물' 이니까요. 숨겨진 오아시스가 없다면 사막의 길은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되는 그 길 위에서 낙타는 살아있는 자신 다음으로 중요한 셈이니까요. 나는 아직도 길이 멀기만 한 그 푸른 눈 일행에게, 그저 떠날 수 있을 만큼의 희망이라도 주어야지 싶었던 겁니다.

부락의 일이라면 뭐든지 잘 듣고 따르려 했던 그들은 이곳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아주 잘 어울려 지냈습다. 아버지는 간혹 부락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응고시킨 양젓과 모래 속에 넣고 잘 구운 케세라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모인 사람들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춤도 추었어요. 그때만큼은 누구나 새 정착지와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덩치가 커다랄고 하얀 남자는 일을 잘했고, 피부색이 비교적 검고 날렵했던 남자는 노래를 잘 불렀지만 그레도 사람들은 푸른 눈 사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말도 잘 하지 않았고 나물도 우리 안 청소를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레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푸른 눈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은 참으로 막연하고 맹목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아버지나 아줌마,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 푸른 눈을 좋아하세요?" 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웃기만 하더군요. 나는 그 사내가 '푸른 눈' 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른 눈 사내는 나물 도와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함께 낙타푹을 뜯기도 하고 야크와 양들의 똥을 모아 불을 지피는 일 등을 거들었어요. 나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따위에는 별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 그는 왜 푸른 눈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는 나에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할지 몰라요. 누구든지 태생의 문제 앞에서는 입이 다물어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나는 낙타와 흄을 가지고 이 사막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모래 빛깔과 사막의 비탈진 언덕을 꼭 닮은 낙타의 흄은 사막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자기 보호막인 거지요. 그에게도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눈을 이토록 푸르게 만든 거지요?

게르바 주머니에 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알레그에서 열흘을 달려 칸칸트 산맥까지 왔지만 그들은 중도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급작스런 돌개바람의 출현으로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 에일런은 지도를 통해 길의 방향을 가능하려 했지만 거센 돌개바람이 이곳저곳에 모래기둥을 세우고, 비탈진 골짜기와 둥근 계곡 등의 지형을 바꿔놓은 탓에 그는 쉽사리 길을 찾지 못했다. 지도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미로지(坜)라 될 뿐이었다. 낙타 발바닥에 차고올새로 갈아주고 먹이를 주는 일부러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두는 일까지, 모두 오아시스를 근방에 두고 있는 취약지대를 찾지 않으면 불가치한 일이었다. 한낮의 폭염으로 이미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다. 버만은 더위와 바람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다. 사막에서는 보통 이리다가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 정신이 마비되고 의식을 잃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에일런은 마땅치 않아도 지금 이곳에서 쉬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미! 버만! 그만 멈춰 서.' 선포에서 서 있던 에일런이 낙타의 고삐를 풀자 지미와 버만에게 소리쳤다.

### 심사평

## 가능성 꿈꾸는 이색적인 수작

      음모작품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창작 열기가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편의 작품들은 소설 쓰기가 요구하는 치밀한 자기반성과 세계를 향한 투쟁의 강도가 만만치 않았다. 예컨대 이번 음모작들은 도덕적 자아를 상실한 개인의 윤택린 내면 의식을 치열하게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는 편이었다. ‘목격자’, ‘나를 닮은 것은 내가 아니라’, ‘대동여지도와 튜튼한 동아줄’이 표방하는 세계는 그러나 그 치열성에도 불구하고 미학적 완성도가 부족했다. 실연한 무명 만화가의 읍울한 내면 풍경을 그리고 있는 ‘나비의 무게’는 이들에 비해 한결 돋보이는 작품이지만 가작으로 추천한다.

      “흐르는 모래 발자국”은 수작이다. 사하

      윤재용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모래와 자갈로 뒤덮여 있는 레그에 그들은 털 담요와 가죽 천을 깔고 앉아 짐을 푸르기 시작했다. 에일런과 지미가 짐을 푸르는 동안, 버만은 바위에 기대앉아 고개를 떨군 채 가쁜 숨을 몰아쉰다. 단철 점사들을 꺼내고 삼각대에 냅뿔을 걸었다. 마지막 남은 밀전병을 꺼내자 지미가 에일런을 힐끔 쳐다보았다. “일단 먹자.” 에일런은 짧게 말했다. 설탕과 바터로 반죽한 밀전병을 부치고, 대추야자와 땅콩 몇 개를 꺼냈다. 차를 풀일 만큼의 여유는 되지 않았다. 덩치 큰 버만은 남들보다 곱으로 먹을 정도의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하라에 온 이후로는 갖춘 것 없는 식사에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다. 열병에 시달리는 버만은 오히려 가장 먹지 못하고 있었다. “떡지 않으면 죽어, 고기 몰라?” 지미는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레도 버만은 먹여도 듣지 않았다. 에일런은 지금 상태의 버만을 데리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쉬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불과 식량의 하루를 버티기에도 벅차 보였다. 하루 빨리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오늘 밤이 고비다. 에일런은 생각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일단 뿔을 피해 텐트를 치기로 했다. 버만은 짙 짙 끊는 몸을 자신의 일인용 텐트 안에 누웠다. “젠장.” 지미는 버만의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진다는 걸 느꼈다. “어째 쥬?” “어까보다 더 심해졌어. 밥 먹기 전에는 그레도 말도 쏘고 그랬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려. 마비가 시작되려는지 움직이는 것도 슬슬 이상하고.” 언지와 검지 사이로 턱을 때만 치며 지미가 대담했다. “차를 끊어, 한 컵만. 눈 좀 풀어도 좋지.” “혹시 그게 아니면 뭐냐?” 에일런은 열매 하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뿔 말하는 거지? 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지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에일런은 낙타 배에 매달린 자신의 게르바 주머니를 던져주고 낙타의 고삐를 틀었다. 왔던 길의 반대 방향으로 그는 달려갔다. 그가 사라지자 지미는 세 게르바 주머니를 한 데 모았다. 보나마나 버만의 것은 비어 있을 것이다. 녀석은 셋 중에서도 가장 참을성이 없었다. 에일런의 게르바를 열었다. 반이 조금 넘는 양이 남아 있었다. 지미는 우선 에일런의 것을 따라 부었다. 자신의 게르바를 만지작거리던 지미는 묘자른 양만 자신의 것에서 따라 붓기로 했다. 등 뒤로 가쁜 기침을 내뿜는 버만의 얇는 소리가 청얼대듯 지미의 귓전을 맴돌았다.

      멈춰 섰다. 방향을 잡기 위해 오랫동안 사막을 살폈지만 메즈베드(흔적이) 있는 낙타 길은 보이지 않았다. 이 길을 지난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에일런은 일순간 자신이 혼자라는 공포를 느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지평선만 보일 뿐. 낙타가 지나간 발자국 하나, 메마른 나무 끝에 달린 열매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무더운 공기가 훑거릴 때마다 에일런의 눈에는 물기둥과 흄수츄들이 비쳤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헛였었다. 내리쬐는 태양빛으로 지면의 온도가 80℃에 달하면 사막에서는 누구나 환영에 시달린다. 눈앞에 떠오르는 환영들이 다 비슷비슷한 이유는 사막에서는 모두들 같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에일런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물기둥과 흄수츄들이 다가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다가가면 사라지는 것을 좇기 위해 에일런은 지금껏 너무 멀리 왔다. 지미에게 주고 온 게르바 속 물 한 모금이 머릿속에서 간질했다. 그 한 모금이 있었던들 눈앞에 저것들을 좇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에일런은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알레리 령 부근에서 만난 타자칸트 족의 야랍 소녀는 낙타에게 몸을 내맡기는 법을 알려주었다. 사막을 건널 때, 여가가 끝이었으면 실을 만큼 아득한 순간,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도 낙타 위에 몸을 수인 채, 낙타의 목을 가만가만 끌어주라 했다. 에일런은 도저히 이대로 사막을 건널 힘이 없었다. 소녀의 말대로 그는 낙타의 목을 끌어주며 우어— 우어— 깊은 울음을 울었다. 보다 간절하게 보다 구슬프게, 그러자 낙타가 부름에 대답하듯 고개를 천천히 위로 돌렸다. 볼록 튀어나온 커다란 눈을 끄며였다. 우어—우어—(제발 가조 낙타야) 우어—우어—(나는 더 이상 너를 뭘 힘 없단다) 그러자 정말로 낙타가 제 알아서 걷기 시작했다. 왔던 길을 되돌아 낙타가 방향을 틀고 종종 우치를 바꾸며 사막을 걸어가다. 에일런은 양손을 촉 늘어뜨리고 낙타에게 몸을 내맡겼다.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야랍 소녀는 에일런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부족 언어로 말하곤 했다. 그것은 에일런 역시 마찬가지였다. 알아듣긴 뭘 알아듣긴. 그들의 대화엔 서로를 이해시키기 위한 손짓이나 발짓 등은 사용되지 않았다. 먹이 주는 일을 마치고 그들은 우리뻘 차양 밑에 나란히 앉아 사막의 끝을 바라보며 해가

      라 사막에서 생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색적인 소설인데, 기성 작가의 솜씨에 비해 손색이 없다. 감각적이고 섬세한 문장, 사랑과 고독의 이름으로 생의 심연을 응시하는 나레이터의 시선, 절제된 인물 묘사,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과 모래의 이미지 처리 기법 등 서사 전체가 매혹적이며 단순한 율림을 전 해준다. 게다가 이야기의 무대가 독서 체험의 영역을 풍성하게 확장해준다. 사하라 사막의 알레리 령 부근에 사는 타자칸트 족의 야랍 소녀와 길을 잃고 헤매는 세 사람의 외국인들에 관한 이야기—듣기를 통해, 한국문학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꿈꾸어 볼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윤재용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질 때까지 이야기했다. 차라리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매번 떠나야하는 일이 늘 견디게 괴롭다거냐, 이런 삶을 살아야하는 내 자신이 불행하다거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매번 하는 이동인데도 길 위에 설 때마다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 길이 내 생의 마지막이거냐, 내 부모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으면, 나는 차라리…… 하고 생각해보려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다시 이를 악물어요. 쥐나 뱀이나 대충 잘라서 그냥 날로 먹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 벌에 잘 말려줬다가 먹는 게 그나마 나아. 지미 그 녀석은 잡아주는 족족 잘도 받아먹지요. 난 부족들이 살을 발라서 쪼래도 인권 줘요. 돼새기는 걸 잊지 않지. 까딱하디간 지미처럼 내가 뛰고 있는 게 스테이큰 줄 착각한다면가. 그렇게 되는 건 정말 싫다구. 이곳에서 태어나는 것들은 모두 사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워든 남들과는 다른 한 가지씩을 갖고 태어나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는 뿔을 갖고 태어났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에게는 눈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낙타를 기르며 그들이 나고 죽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이동 때마다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길을 잃어 홀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모두 보았지요. 나는 그들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내게는 보이거든요, 죽음이. 나는 간혹 뜻하지 않는 상황, 상대에게서 죽음을 읽어내요. 아침에 양의 젖을 짜다가도 느닷없이 마을의 한 남자에게서 죽음의 기운을 느껴요. 그가 죽어요. 그 말로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었죠. 물론 사막에선 많은 이들이 우연에 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난 그 무수한 우연의 일치들에 몸을 떨어요. 입 밖으로 내뿜을 수 없는 막연한 이미지들이 그렇게 내 앞에서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겹쳐져요. 죄를 지어본 적 없나? 사막이란 곳은 도무지 죄를 질 만한 그 어떤 벌imore 제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와 너희 부족들은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세상은 이곳과는 참 다른 곳이야. 죄를 짓지 않곤 살 수 없지. 나는 그곳에서 죄짓지 않고 사는 일간을 본 적이 없어. 이젠 맹세할 수 있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태어나 이제껏 한 것들, 본 것들, 날날이, 하나로 빠졌없이 알게 된다면 난 아마 몹스러릴 거다.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봐요. 내가 지금 당신의 그 푸른 눈에서 무엇을 본지 알아요?

      에일런을 업은 낙타가 네 다리ro 터덜터덜 사막의 모랫길을 걸어왔다. “에일런!” 달려온 지미가 소리쳤다. “대체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혼자서 뿔 어찌했다고! 이봐, 에일런! 에일런! 정신차려. 고개를 들라구!” 지미의 부족을 받고 에일런은 낙타 위에서 내려왔다. “뿔이 지평을 거야. 얼른 재워…….” 에일런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 지미에게 속삭였다. 스프르 무너지며 낙타 위에서 내린 에일런은 지미의 도움으로 텐트 안으로 몸을 옮겼다. 뻘하니 사라져서 뿔 흐느라 이런 꼴로 나타났느냐는 지미의 다그침에도, 에일런은 한마디도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머리가 팽팡 돌고 입 안이 굳어지는 듯 하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다. 에일런은 자신이 일어 동안 사막에서 길을 헤맸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언제 어디서부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의 기억 속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낙타 위에서 잠시 잠에 들었을 뿐이고, 등짝 위로 쏟아내지는 무참한 별의 썬임에 뜨겁다 아프다, 느끼다가……. 지미였다.

      두 마리의 낙타를 잃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어린 새끼였고 하나는 그보다는 조금 더 큰, 그레도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낙타였습다. 이동 십사 일째에 우리는 벌써 손 안에 한 것들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주먹 이상의 모래를 쥐고 매에도 그것은 소리 없이 새어나가더니, 마지막 한 주먹도 다르지 않았습다. 미세한 모래알들은 흄주어 쥐고 있으면 천천히, 느슨해진 마디 틈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갔습다. 사막을 다 건널 때쯤 우리 손에는 얼마만큼의 모래알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부족들이 다같이 살 수 있을 만한 너른 오아시스 지대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은 쉼터에 지나지 않아요. 그곳의 물은 취탁에 필요한 만큼이 되지 않거든요. 탐색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부락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어요. 그레도 우리들은 그곳으로 이동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물이 말라 더 이상은 남아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일단 그곳에 가 닿는 것이 중요하됩니다. 살아서 간다는 것. 다른 모든 것은 차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 닿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부터 죽어 가는 낙타들을 만난 겁니다. 돌개바람이 심하게 부는

## 제19회 동대문학상

      이제는 딱 열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을 쓰면서 나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만났고 그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 나의 열망 때문에 몸이 달아 언제나 기진맥진했다. 곧 쓰러질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섰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그렇게 가지는 못했다. 나는 지금도 내 사랑을 다 받아주지 않는 소설 때문에 아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면서 이내 또 풀어들려는 이 마음을 붙들고 소설에게 가고 있다. 평생을 이렇게 산다 해도 나는 소설을 탓할 수 없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도 아닐 테니 나는 그저 내 몸이 아프면 아픈대로 살 뿐이다.

      사랑해서 제 병이 안타까우신 어머니, 격정 마세요. 죽지 않아요. 역시 사랑해서 제 병마저 자랑스러우신 아버지, 기대하세요. 더 열렬히 아파 볼게요. 그리고 나의 심장 유적지대들, 숨겨놓은 보석 오리, 떠남과 동시에 고향이 된 소설분과 사람들, 큰 가르침 주신 동대 문학 곡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작품 어떤 마음으로 뽑아주셨는지 알고 있으니 심사위원 선생님께는 보다 단단한 소설ro 보답하겠습니다.

      이희진 (예술대 문장3)

      날이었지요. 어미의 꿈무늬를 따라 잘 좇아가던 어린 낙타가 갑자기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이내 죽었지요. 가쁜 몸을 멈추고 우리는 죽은 낙타를 모래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낙타는 오랫동안 자리를 뱅뱅 맴돌더군요.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낙타는 사막 위에서 세 새끼가 죽으면 그 장소를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사막을 건널 때 낙타가 이유 없이 슬퍼 울기 시작하면, 아마도 자기 녀석이 밟고 있는 이 땅이 제 자식의 무덤이었구나…… 나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필두ro 해서 길게 늘어선 메ారి스트(낙타를 몰고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부터 타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꼬리를 물고 가는 사람들의 속도가 자꾸 늦어지고 있던 거죠. 아버지는 종종 행렬의 순서를 바꾸어가며 지친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나도 낙타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뱃대끈을 쥐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손을 높이 들더니 크게 원을 한 번 그리고는 앞 쪽으로 길게 내뿜었어요. 목격자가 눈앞에 있다는 신호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턱 밑까지 차오른 가쁜 숨을 안도와 기쁨으로 더 깊이, 더 높게 끌어올려 길게 내뿜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자들은 우선 수막부터 찾았습니다. 수막을 풀고, 그 갱 안으로 몸을 길어올리는 데 쓰는 가죽을기를 내러 물을 떠왔습니다. 여자들은 짐을 내려 천막을 치기 시작했지요. 우리들은 분주하게 손을 모아 재빨리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고삐와 뱃대끈을 풀러 낙타들을 일꾼 수풀지대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떤 일의 끝들을 물론, 매마른 나무의 잔기둥까지 두터운 혀로 감아치는 낙타들의 모습은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고된 길을 달려온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천막 안에서 활활한 휴식에 들어갔어요. 아빠가 떨어야의 가시 박힌 손등을 살펴주거나, 아내가 남편의 부서진 낙타 안장을 고쳐주고, 온 가족이 가로 누워 혼곤한 잠에 빠져드는 모습들. 나는 그들을 지켜 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다. 어머니가 저 멀리서부터 나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어머니가 열댓 대추열매들을 본 것 같다는 언덕 뒤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간 그곳엔 정말로 커다란 대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몇 그루의 대추나무에 다다귀다귀 붙어 있는 대추열매들을 보자 나도 모르게 활짝웃음이 피어났습다. 어머니와 나는 정신없이 열매를 따기 시작했지요.

      “내일 식사 때에 조금 내놓고 나머지는 이동할 때 도 나눠먹자.” “대추나무가 자란다면 다른 나무 열매들도 더 있지 않을까요?” “글쎸. 찾아봐야겠지.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은 안돼. 알고 있지?” “네…….”

      나는 순한 양처럼 대담했습니다. 혼자 떨어진다니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졸음 맞춰 이동할 때에도 우리들은 수시로 자신의 뒷사람을 확인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는 꼭 대열에서 소러 잃어 사러지지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으리라는 것쯤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일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일지, 아니면 단지 부주의했던 탓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 그때 뒤를 돌아보았다면, 당신이 만약 그때 무언가를 알아챈다면, 뿔가 달라졌을까요?

      내가 그 사내에게서 본 것은 푸른 공포였습다. 공포가 색을 띨 수 있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알았지요. 너무 맑아서 안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그의 눈에는 이미 결정으로 굳어진 생의 공포들이 오도도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허락도 없이 그란, 그것들을 모두 잃어내 버렸습다. 곁이 거친 공포의 자흔들은 화석처럼 그가 살아온 삶을 비추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처럼 무리의 중심을 맡고 있었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행동으로 일행들을 대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하는 말 역시, 그의 단단한 몸짓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나와 있을 때만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앞에서 그는 우물거렸고, 자신 없었고, 작아졌고, 곧잘 숨 죽였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만만큼은 두렵다고 소리쳐 울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살아있어서 공포스럽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때 나는 그에게 레몬 트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 이하생략 -

      ※ 본사 홈페이지(<http://dgupress.com>)에서 당선작품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위풍당당 동국인

감정평가사 홍순열(철학과 88졸) 동문

동문칼럼

“남보다 먼저 목표 정해 장기적인 준비에 매진해야”



그로써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인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평소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다.

정평가사'라는 새로운 목표가 정해진 후부터는 하루 3시간 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커피마시는 시간 정도도 아깝게 여길 정도로 시험공부에만 매달렸다고 한다.

회에 자동으로 등록돼 활동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학교 후배들이 자문을 구하러 찾아오거나 시험에 합격해서 회원 자격을 획득한 것을 보면 반갑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우리가 활용하는 토지는 누구에 의해 그 가치가 판단되고 가격이 책정되는 것일까.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민영업체의 재건축 시에도 토지, 건물의 가액을 산출하는 '감정평가사'. 그들이 바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인공들이다.

행에서 근무하던 형이 담보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홍 동문에게 추천해 주면서 이 직업과의 첫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철학과 3학년생으로 한창 취업을 고민하고 있던 때,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다.

“요즘은 이것, 저것 여러 가지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보다 한 가지 목표를 남보다 먼저 선정해, 그 분야에만 집중하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홍 동문이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수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합격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그는 “준비 기간을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뒤 ‘나는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예요”라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홍 동문이 시험을 준비하던 10여년전에도 역시 일반 사람들에게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한다. 특히 그 당시 철학을 전공하던

실제로 감정평가사는 변호사, 세무사나 공무원처럼 일정한 국가 공인 시험을 통과해야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이다.

오랜 시간을 노력 해 얻은 직업인만큼 흥분은 누구보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책임감이 크다. 실제로 자신이 평가한 공적인 목적의 땅이 몇 년 지나 국가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하고 이 일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바라지만 그 만큼 많은 사람이 포기하기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일이란 그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홍 동문이 시험을 준비하던 10여년전에도 역시 일반 사람들에게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한다. 특히 그 당시 철학을 전공하던

실제로 감정평가사는 변호사, 세무사나 공무원처럼 일정한 국가 공인 시험을 통과해야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이다.

오랜 시간을 노력 해 얻은 직업인만큼 흥분은 누구보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책임감이 크다. 실제로 자신이 평가한 공적인 목적의 땅이 몇 년 지나 국가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하고 이 일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바라지만 그 만큼 많은 사람이 포기하기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일이란 그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대학생의 소임 지켜나가길

류계복 통계학과 78년 졸 청주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우를 받았던 이유는 대학생의 회소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어려웠으므로 대학생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사회와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고 만약 올바르게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맘때쯤 되면 온 나라가 대학 입시 문제로 떠들썩하다. 금년에는 대학수능 시험을 치른 응시자가 61만 여명인데 비해 전문대학 이상의 입학정원이 이보다 훨씬 많더니 각 대학에서 수능 응시자들은 아주 귀한 손님이 되었다.

대학생이 되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나의 안위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안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학생들은 일반인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고등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 여러 대학에서는 학생 모셔오기가 대학 존립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의 대학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일부 대학에서는 총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학생회장선거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도 일반 학생들의 참여 부족으로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의 이해와 관계가 없는 일이면 부정과 비리에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70년대에 대학을 다닌 우리들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라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대학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동량이다.

그 당시에는 술값이 없어도 대학생이면, 처음 온 학생이지만 다음에 와서 같으라고 외상을 해주기도 하고, 어지간한 실수를 해도 대학생이라고 하면 관대하게 봐주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무전여행을 하다 낯선 곳을 방문하면 그곳 주민들로부터 친절한 안내와 호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러분이 자신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때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사회로부터 특별한 대

오늘의 서울시 대학생 시정개혁논문 공모전 수상한 정윤식(경주캠 법학3)군

“항상 남과 다른 발상을 하려고 노력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 우리학교에도 항상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며, 이를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표현해 내려는 학생이 있다. 얼마 전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한 '2004년 서울특별시 대학생 시정개혁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정윤식(법학3)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써 놓은 작품도 여러 편이며 현재 한 대기업에서 실시한 대학생 아이디어 기획 공모전에도 작품을 출품한 상태이다.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이를 통해 다방면의 공모전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레포트나 논문 작성이라 하면 먼저 부담부터 느끼기가 쉬운데 이에 대해 그는 “미리 자신이 전공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내용을 스크랩,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조언한다.

그의 남들과 다른 발상으로 완성해낸 지금의 논문 속 아이디어들이 우리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린 시절 1 더하기 1은 왜 곱 2가 돼야만 하나고 질문을 해,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엉뚱하게만 보이는 이러한 발상이 오늘날에 와서는 전자계산기 회로의 중요한 원리로

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 군에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를 한편의 논문으로 완성해 내는 것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방학을 모두 이번 공모전에 낼 논문을 위해 투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각종 학회와 세미나, 국립 도서관, 산업자원부 등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해서 완성한 논문을 보면 너무 뿌듯해 또 다시 다른 논문을 준비하게 된다.

그는 “누가 가르쳐 주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해 공부한 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됐다는 자제만으로도 너무 기뻐요”라며 밝게 웃는다.

정 군은 정식으로 외부 공모전에서 수

본교 대학원생 CCIE자격증 획득

우리학교 영상정보통신 대학원 네트워크관리학과 학생들이 시스코사가 주관하는 국제공인 네트워크 관련 최고전문가 자격(CCIE) 시험에서 대거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까지 네트워크 관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장민석(7월), 김지영(10월), 김경희(11월) 3명의 학생이 합격 통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CCIE 자격증은 국제적인 네트워크 관련 최고 전문가 자격증으로 기본 자격증인 CCNA와 최고자격증인 CCNP를 획득한 학생에 한해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는 480명, 전 세계

에서는 1천 4백명만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상정보통신 대학원 정경훈 교학과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획득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사랑을 실천합니다

동국사랑 나눔터 Dongguk University 1969. 이곳은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후원의 집

산유화 (한정식전문점) TEL 2272-5457, 2273-1989. 엠버서더호텔 맞은편 언덕 위에 위치. 영업시간 12:00~23:00. 예약 가능. 휴무일 큰명절

느티나무 (고기 전문점) TEL 2279-2439. 엠버서더 호텔 맞은편 산유화 뒷쪽으로 20미터 위치. 영업시간 9:00~23:00. 예약 가능. 휴무일 큰명절

가파마들렌 (케이크 카페) 전화번호 2269-5833. 동국대 후문에서 왼쪽으로 50미터 녹두4거리에 위치. 영업시간 6:30 ~ 새벽1시. 예약 가능. 휴무일 없음

옥돌정 (한국음식전문점) TEL 2266-2409. 제일병원 사이길로 퇴계로 방향 우측으로 한글목 50미터 위치. 영업시간 11:00~22:00. 예약 가능. 휴무일 없음

백상 (한국음식전문점) TEL 2263-7700-1. 동국대 후문을 나서서 오른쪽으로 50미터 지점 위치. 영업시간 7:00~22:00. 예약 가능. 휴무일 없음

동국돼지마을 (고기전문점) TEL 2279-2352. 하이마트골목으로 10미터 전방 왼쪽 위치. 영업시간 10:00~새벽1시. 예약 가능. 휴무일 큰명절

담소원 (한국음식전문점) TEL 2265-5981. 충무 초교 앞 유료주차장 옆 위치. 영업시간 11:00~21:30. 예약 가능. 휴무일 공휴일

강서 (중국요리) TEL 2266-0466. 동대 후문에서 왼쪽 녹두거리 쪽으로 50미터 위치. 영업시간 10:30~22:00. 예약 가능. 휴무일 둘째, 넷째, 수요일

손가네 민물장어 (장어 전문점) TEL 2269-9953. 녹두사거리에서 남산방향 30미터 지점 바이데이 맞은편 골목. 영업시간 10:00~22:30. 예약 가능. 휴무일 매주 일요일

동국사랑 나눔터는 동국대학교와 긴 세월을 함께 해 오며 동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덕골의 모범업소로서 동국가족의 일원이 되어 상호 협력발전의 뜻을 함께 하는 업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처 Tel 2260-3881~3

보리소

유비쿼터스, 나비꿈과 화엄경

격변하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최근 유비쿼터스 혁명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또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란 모든 컴퓨터와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가리킨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이 등장했고, 실재를 온라인 공간에서 모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터넷 발달과정인 것에 비해, 유비쿼터스는 반대로 모든 실재하는 세계에 컴퓨팅 공간 개념을 심는 것이다. 이미 전자태그 기술의 발달로 모든 사물이 컴퓨터가 심어지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네트워크의 끝이 단말기 형태로 인간의 외부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볼 때 머지않아 우리의 몸 안으로 침투하게 될 것이다. 실재가 가상으로 다시 가상이 실재해 되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모든 존재가 서로 하나의 광대한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세계는 우리에게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당황스러워 할 뿐이다.

현대인들은 흔히 고전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사상가들은 언제나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찍이 장자가 무언을 꾸고 있는 자신의 꿈을 꾸어서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되었는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지만, 장자와 나비는 반드시 구별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물(物)의 변화라고 말하였다. 또한 신라 시대 의상스님은 '화엄경'의 진리를 요약한 '법성제(法性偈)'에서 '하나 속에 모두이고 모두 속에 하나이며, 하나이자 모두가 되고 모두가 하나여라. 아홉세상 열세상이 서로서로 넘나드나, 어지러이 안 섞이고 따르따로 분명하네'라고 하였다.

장자와 의상의 가르침에 유비쿼터스 세상을 살아 갈 지혜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

류승주

불교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우리 역사상 20세기는 그야말로 치욕으로 점철된 파란만장의 시기였다. 개항을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의 외압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해 결국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해방과 동시에 민족과 국토가 분단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에도 식민 잔재의 청산이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남북 간에 극단적인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야기되면서 발전을 제약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20세기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때마침 올해는 러일전쟁이 발발한 지 꼭 100년이 된다. 20세기 벽두에 발생한 러일전쟁이 우리 근현대사의 방향을 왜곡·굴절시킨 실마리가 되었던 만큼, 향후 100년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를 21세기 초를 맞이해 러일전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미래로 나아가려는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비판없이 올바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러일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

러일전쟁은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을 배경으로 일본이 영·미 양국의 후원 아래 일으킨 제국주의전쟁이다. 실제로 러일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전비 17억 엔 가운데 4할은 영국과 미국에서 모집한 외채로 마련됐으며, 전쟁을 마무리하는 포츠머스강화조약을 적국 중재했



한철호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의 거울에 비춰본 러일전쟁의 의미

던 나라도 미국이었다. 아울러 강화조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태프트·가쓰라밀약과 영일동맹이 개정됨으로써 한국의 운명은 스스로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열강들의 이해관계로 결정되고 말았다.

이처럼 러일전쟁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었기 때문에 교전국도 아니었던 한국은 전쟁의 격전장으로 변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최대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전쟁 중 한국이 전정상대국의 피점령지도 아니었으며, 엄연한 독립주권국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동시에 전국에 군대를 주둔시켜 저항하는 한국인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 이런 의미에서 러일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이기도 하다.

집권층 무능·의병과 민중 저항

한편 러일전쟁 당시 집권층은 기껏 아관파천의 경험을 되살려 외국공사관으로 파신하거나 중립화노선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자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심지어 반일 의병을 효유·진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권과 민권이 아닌

황실의 보존에만 골몰했던 나머지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외세의존적·반민중적 태도로 일관한 집권층에게 전쟁의 타개책을 기대하기는 곤란하였다.

또한 지식인들은 전쟁의 본질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경탈에 있음을 간파하고 일차적인 원인이 고종과 집권층의 부패·압제에 있다고 인식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내정개혁과 침략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열강 간의 상호 견제에 의해 독립 보장을 낙관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의병과 민중은 국제정세의 흐름에서 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을 꿰뚫지는 못했지만, 국지적으로나마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직접적·비타협적으로 투쟁해 나갔던 것이다.

과거의 치욕 반성해야 할 때

오늘날 북한 핵·일본의 우경화에서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러일전쟁 발발 100주년을 맞이해 과연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강대국에게 내맡겼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부할 정도로 대외적 자주와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고 있는지 곰곰이 되씹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러일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침략했던 행위가 자국에게도 불행을 안겨준다는 역사적 교훈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생들의 고충에 대한 관심 부족

지난 호 동대신문에는 중요한 기사들이 많았다. 우선 우리 학내 복지시설의 실태에 관한 기사는 공감이 갔다. 우리학교의 전문 상담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타 대학과 비교해 잘 보여줬다.

2005학년도 교과과정 개편 기사는 학생에게 중요한 정보를 잘 알려주고 있다. 특히 상황조정된 교필 이수 학점에 대한 정보는 학생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유용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은 공사에 관한 기사는 좀 더 크게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그동안 동국관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은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국보법 문제, 총학생회 평가 토론회 등의 문제들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한 수업 법을 권리침해를 큰 문제로 제기하지 않은 것은 대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의 고충을 가볍게 생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신문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라도 이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도하는 것이 바로 학교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지난 호에는 새로운 산책로 조성, 수강 과목 사전 조사 실시 등 학생들이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 유익했다. 또한 김홍우 교수님의 색에 담긴 의미라는 칼럼도 흥미로웠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널리 알리고 학생의 고충을 담아내는 진정한 대학신문의 소리를 기대할 것이다.

최태경(예술대 문창3)

소나기

내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겨울은...



△군대에서 3년 연속 눈 쏘았던 기억. △지난해 겨울 크리스마스 때 혼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너무 서늘했던 기억. △수능 끝나고 혼자 영화관에 갔던 날, 그 날은 너무나도 추웠다. △제대하던 겨울, 정말 무엇 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날.

△2000년, 처음 여자친구를 만났던 그 겨울. △작년 겨울에 어학연수 갔던 남자친구가 돌아오던 날. △대학 입학 전 바로 그 겨울, 수능보고 원서 넣고 합격 발표 전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접 일한 대가를 받았던 그 겨울. △눈이 펄펄 내리던 크리스마스이브, 여자친구와 헤어진 바로 2000년 그 겨울. △한 겨울에 8차선 도로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 △97년 추운겨울 생일날, 친구가 미역국도 못 챙겨 먹었던 나를 걱정해서 미역국을 가져와 감동했던 일.

학생들에 대한 '이해' 바라며

지난 동대신문을 확인하다가 무심코 한 교수님의 기고 글을 보았다. 그 글에는 학생들을 무지하다는 말로 단정 짓고 있었다. 그렇다. 난 무지한 학생들 중의 한명이라 자처하고 싶다.

글을 쓰신 선생님께서 수업을 자주 하신다는 학과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그렇게 고향소리가 들리던 곳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소였는가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학우들의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고민하는 장소에서 들리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축제 기간에 엠플를 타고 흘러나오는 학생들의 즐거운 목소리였는지, 각 단과대 해오를 마당을 진행하면서 학우들 앞에서 인사하는 소리였는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단과대를 지켜내기 위한 목소리였는지, 무엇을 위하여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학생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채 글쓴이의 시각에서 무지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그냥 무지한 학생들로만

비추어져야 하는가?

그 무지한 학생들은 바로 소중한 학우들의 표로 당선이 된 학생대표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 학생들을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대표자를 믿어주고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 무지하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왜 우리같이 무지한 학생들은 이렇듯 학교에서 외쳐대야만 하는가? 우리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대학 평가를 보면 모르는가? 이 땅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사회의 민주와 통일을 열망하는 학생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알려나가는 것이 과연 무지한 것인가?

물론 진정으로 학우들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면 과감히 고칠 필요가 있다.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더 다가가고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 무지하다고 몰아세우는 선생님들로부터가 아닌, 학생들은 무조건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학교당국이 아닌,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한명 한명의 목소리로부터 이끌어져야 하는 것이다.

김홍환(사범대 국교4)

도서관으로 타인을 배려

학교를 다니면서 중앙도서관의 책 대출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공감이 될만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공부에 도움을 받고자 도서관 책을 이용하는 자세는 정말 보기에 좋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한 책을 반납하지 않고, 몇 일 아니 몇 달씩 연체를 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책 대출에 있어 다른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격 결정 시험시즌이 되면 관련된 책을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두어도 시험이 끝나서야 겨우 내 차례가 되는 경우가 잦다. 나의 경우에도 컴퓨터 자격증을 치르기 위해 몇 주 씩이나 기다려야 빌리고자 했던 책을 빌릴 수 있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은 좋지만, 자신이 빌린 책을 연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우리 동국인들이 많은 신경과 배려로 고쳐나 가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규혁(이과대 반도체2)

생협 도서 특별 할인 판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점에서는 KG북 플러스 제휴도서와 서점 내 소장도서를 아래와 같이 특별 할인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 기간 : 2004. 11. 15(월)~11. 26(금) 【단, 토, 일요일은 제외】
2. 장소 : 다량관 구내서점, 상록원 인규
3. 할인도서

Table with 2 columns: KG북 플러스 도서, 구내서점 소장 도서. Includes details about book types and prices.

- 4. 한점수량만 판매하므로 조기종결 될 수 있음
· 종로서적 발행도서 최저가판매 및 대학생 권장도서 50여종
· 고매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월간 페이퍼, 쿠폰, 샘플, 문구세트)
· 2학기 마지막 특별 할인행사입니다.
\* 문의 : 다량관 안내서점 ☎02-2260-8956

시험기간 상록원매점 연장영업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상록원 매점에서는 기말고사 기간 중 학생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야식을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 기간 : 11월 29일(월)부터 12월 8일(수)까지 (단, 토·일요일은 6시까지 영업)
2. 시간 : 22:30 까지 판매영업
3. 품목 : 삼각김밥, 샌드위치, 컵라면 등
4. 문의 : 상록원매점 (02-2260-897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은 - 졸업생 추수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에 본교를 졸업한 동문들에게 최신 실무지식을 재교육하여 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문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 마케팅, 협상, 전략기획, 문제해결, HRD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선임하여 강의 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전체 이수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희차 별 특강 주제는

Table with 6 columns: 회차, 특강 주제, 강의 개요, 강사, 주요 경력, 일시/장소, 장소. Lists various career development topics and speakers.

- 모든 강의는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 저녁식사 대응 간식을 제공합니다.

참가 방법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의 공지사항에서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 클릭하여 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강 시간 3일전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교재 부수 결정 및 강의장소 섭외를 위해-)

대외협력처

Advertisement for '정치, 미디어와의 커뮤니케이션' (Politics, Media and Communication) featuring Park Young-seon, a member of the Open United Party. Includes a photo and a list of her career achievements from 1982 to 2004.

Advertisement for '생협 도서 특별 할인 판매' (SBS Book Special Discount Sale) listing various books for sale at discounted prices, including titles like '대외사, 종로서적 발행도서 외 다수' and '고려원 도서 외 다수'.

Advertisement for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 (Dongguk Career Power Up Program) detailing the program's goals, topics (Marketing, Negotiation, etc.),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gistration.

### 달하나 천강에



정병조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어느새 달력이 당그렇게 한 장 남았다. 짧았을 때는 지겹게도 나이를 안 먹더니 요즘은 세월이 깃털처럼 가볍게 흘러간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열심히 가르치지도 못한 채 또 한해를 흘러보낸다.

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아슬고 섬섬 하지만 그래도 세월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 올 한해 서운했던 일, 나쁜 기억들을 망각의 늪에 묻고 싶다.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버린 지금, 우리 사회는 좌절과 절규로 얼룩지고 있다.

#### 달라이라마가 남긴 가르침

최근 달라이라마는 인상적인 법문을 한 적이 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중국정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달라이라마는 현존하는 불교 지도자 가운데 가장 폭넓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열 일곱살 때 포탈라궁을 떠나 정처 없는 망명생활로 들어섰다. 히말라야의 기슭 ‘다람사알라’라는 곳에서 5만명의 티벳 난민들과 함께 기약 없는 국토수복과 광복을 그리고 있다. 그는 여태까지 단 한번도 무력에 의한 독립투쟁을 시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두 번 만났다. 첫번째 만남은 지금부터 꼭 10년 전 우리나라에 불교방송국이 개국할 때 그를 초청하기 위해 찾아가 이루어졌다.

그의 첫 인상은 매우 솔직담백하다는 점이었다. 허세도 없었고, 지적 오만도 없었다. 내가 동국대에서 왔다고 하자, 자신이 기증한 티벳 대장경을 열람하는 학생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답답한 어조로 말했다. “불교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흔히 베푸는 행위를 연상하지만, 남을 미워하지 않는 일도 자비입니다. 남을 위하지는 못할망정 해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내가 너무 관념적인 불교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곤 한다.

#### 미움 거두는 일도 ‘자비’

두 번째 만남은 인도 델리에서였다. 한

국 불교신자들이 아예 비행기를 전세내서 달라이라마 친견법회를 가졌다. 나는 그때 통역을 맡았다.

“용서하십시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용서만이 오늘의 역경을 이겨나가는 첩경입니다.”

난해한 법문을 기대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의 가르침은 오히려 명쾌하고도 간결하였다. 그의 매력은 솔직함과 의연함에 있었다.

나는 만약 그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를 철썩선 남방한계선에 모시고 싶다. 싸늘한 북녘 땅을 향해 환한 웃음을 남기게 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끝없이 타인을 미워하는 일에만 쏟는 것은 아닐까. 용서하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는 바로 용서하는 종교여야 한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용서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동국 신문학의 발자취

#### 국화와 산돌

서정주

산에 가서 땀 흘리며 좇아온 산돌.  
하이얀 순이 돋은 水晶 산돌을  
菊花밭 새에 두고 길렀습니다.  
  
어머니가 심어 피운 노란 국화꽃  
그 밑에다 내 산돌도 놓아두고서  
아침마다 물을 주어 길렀습니다.

- 시집 '안 잊히는 일들'(1983)에서

올 가을에, 서정주의 고향 마을인 전라북도 고창의 절마재 마을 일대에 노란 국화가 일제히 꽃망울을 띄뜨렸다. 무려 1억 송이나 된다. 어쩌다가 그의 생각이나 시문학관을 둘러보러 오시는 분들을 제하고 사람 구경 하기가 힘들었던 마을이 이즈음은 밀려드는 인파로 난리다. 그 1억송이의 장관과 같은 향기에 취해 사람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없이 행복해 한다. 우리의 대표적인 애송시 '국화 옆에서'는 이렇게 다시 사랑받게 된 것이다.

위의 시는 서정주 미학의 대표적인 오묘해 중의 하나인 국화의 개인사적 기원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화 옆에서'의 국화가 일본 황실의 꽃이리니, 따라서 고도로 기만적인 술책을 쓴 친일시리니, 하는 언설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열 한살 짜리 소년 이 아침마다 물을 주어 국화와 산돌을 기르던 마음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 국화는 우리의 재래종 동국(冬菊)이다. 찬 서리 내린 뒤에도 의연히 피어 있는, 아름답고도 강인한 여인의 향기를 소년은 우리에게 전해준다.

윤재웅  
시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 메아리

#### 언어와 패권주의

▲지난주 차기 미 국무부장관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방안보담당 보좌관이 지명됐다.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인 라이스 보좌관이 내각에 합류하자 각종 일간지는 향후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대미외교방향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신임 '국무' 장관이 내정됐을 뿐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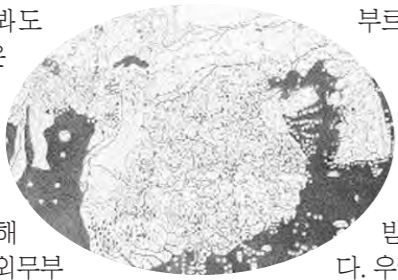
을 모두 오랑캐로 부르려는가 하면, 자기 나라의 임금은 '천자 또는 황제'이고 다른 나라의 군주는 왕으로 칭한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동쪽나라, 우리민족을 동쪽나라에 사는 오랑캐라고 여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구려가 그들의 소수민족이었다는 역사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다.

영국과 일본 역시 각각 자국시간을 세계시간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자기 나라의 왕을 '천황'으로 격상시켜 부르고 있다.

▲이렇듯 강대국의 자국중심주의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가이다.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사

대하지 않고 나름의 역사·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동방'과 '천황'이라는 표현을 각각 '한반도' '일왕'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얼마 전 '천황'의 공주가 결혼한다고 '높여' 보도한 다수 언론을 보면 아직도 식민사관에서 벗어나기에는 멀고 험난한 듯하다.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국무(國務)'의 뜻은 '국정에 관한 사무' 즉, 나라안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답답해서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 미 국무부는 외부의 후신으로서 정보수집과 외교교섭,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풀이돼 있다. 외부부가 없는 대신 국무부가 외교업무를 맡았고, 미국에서 '국정'이란 곧 여러 나라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가 보다.

▲이처럼 미국의 '국무부'는 그 자체로서 자국중심주의 또는 패권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자국중심주의의 아버지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다. '중화사상'을 기초로 주변 민족들

### 사설

#### 적극적인 취업지원 절실하다

2004년도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이번 학기 역시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이맘때면 다들 학기 초 다짐하고 소망했던 여러 계획들을 점검해 보고 남은 기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분주하다.

하지만 졸업을 세 달여 앞둔 예비졸업생들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 대졸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사회전반의 노동수요는 한정됐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신입사원채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예비 졸업생은 아직까지도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단정해 정부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만 바랄 수는 없다. 대학측의 적극적인 취업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본교는 채용설명회와 동문초청 특강을 수시로 개최하고 취업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생입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형식적인 채용설명회나 취업관련 사이버강의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과거에는 학과지도교수와 선배가 주로 이같은 진로·취업상담을 했으나 개인주의가 확산돼서인지 점차 교수와 제자, 선배배관계도 멀어지고 있어 이제는 대학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타대학들은 취업지원부서를 격상시키고 상담원을 충원했으며 교수들도 '1교수 1학생 취업사기키 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학교 역시 교육강화와 함께 취업지원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대학 본연의 역할은 교육이지만 대다수 대학생이 무엇보다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라면 적극 투자해야 마땅한 것이다. 취업이라는 졸업생들의 '포타돈 시작'과 희망찬 졸업식을 위해.

### 동국만평

이호선 icezz@hanmail.net

LR은 등'쌀'  
농민은 이맛'쌀'

쌀+배방 어저귀  
고세화 저저귀  
유예... 동등성...

현상  
테이빙

농민  
식량자급대책도  
없으면서!!!

###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com
편집인	김주환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김본철	구독문의	(02)2260-3491·2
편집장	류병성		
편집장	최성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 1. 취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와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 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 2. 시행시기: 2004. 11. 22(월) ~ 12. 17(금)

#### 3. 대상: 2004학년도 2학기 개설 전체 강좌

#### 4. 응답자격: 2004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

#### 5.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 사항을 선택  
다. 문항 간의사항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6. 공지 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나. 무성의한 답변(5점적 중 일hell로 5회 이상 답변)은 피하기 바람, 권의사항란에는 5점적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표시 조치를 제한합니다.

교무처

### 2005학년도 전공결정

#### 1. 신청대상

가. 2004학년도 1학년 재학생  
나. 2학년 1학기 불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 2. 일정

##### 가. 전공 신청기간

○ 1학년 재학생 : 2004. 11. 22(월)~11. 26(금)  
○ 2학년 1학기 1차 불학생 : 2004. 11. 29(월)~12. 1(수) (1차 불학생시)  
○ 2학년 1학기 2차 불학생 : 2005. 2. 14(월)~2. 16(수) (2차 불학생시)

#####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1학년 재학생 및 2학년 1학기 1차 불학생 : 2005. 1. 28(금)까지  
○ 2학년 1학기 2차 불학생 : 2005. 2. 23(수)까지

#### 3. [대별] 전공결정 기회 및 시기

2004학년부터 매년 2학기말 1회

#### 4.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1학년 재학생 : 인터넷(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재학생서비스-전공신청화면)으로 신청하며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방까지 작성하여 신청.(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미만일 경우에는 4지방 미만이 될 수 있음.  
나. 2학년 1학기 불학생 : 소속 대학 교과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방까지 작성하여 신청.(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미만일 경우에는 4지방 미만이 될 수 있음.

#### 5. 배정기준

1학년 1·2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

#### 6. 불학생의 전공신청 기본원칙

불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

#### 7.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나.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다. 제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교무처

### 2004-겨울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학점 신청)

#### 1. 신청자격: 재학생

#### 2. 신청기간: 2004. 12. 1(수) 10:00~12.3(금) 17:00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

#### 3.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가. 일시 : 2004. 12. 11(토)08: 20~17:00  
나. 장소 : ▶ 특 강 - 본교 중앙관 08:20까지[시간 엄수]  
▶ 현장체험학습 - 한사람 마을·함림원(경기도 광주 소재)  
(※ 현장체험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 (배, 예비교육은 최초 봉사활동 신청 시 이수해야 학점인정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회만 이수하면 됨)

다. 준비물 : 중식 및 간편한 복장 착용

#### 4. 봉사활동 기간: 2004. 12. 15(수)~2005. 2. 26(토)

#### 5. 봉사활동 방법: 기간 중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33시간 이상 이수

(※ 봉사활동 안내 자료: 11월 29일부터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동국참사람봉사단에 비치)

#### 6. 봉사활동 대상기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150여개 기관 600여개 프로그램

#### 7. 사회봉사 학점 신청방법 및 성적처리

##### 가. 학점 신청 방법: 재학생서비스 > 수강신청 > 사회봉사 학점신청

나. 평가 방법: Pass 또는 Fail

다. 성적 평가

(1) 학점 인정: 겨울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

(교과목: 사회봉사 / 이수구분: 자유선택,1학점Pass)인정

(2) 학점인정시기: ▶겨울학기 활동자(2005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반영)

※ (회, 2005년도 2월 졸업대상자는 사회봉사 학점신청 불가)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편성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4)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 특 전: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성적우수 장학선 선별시 시간인정/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훈장수여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봉사단 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동국참사람봉사단)

동국참사람봉사단

### 매체비평

#### 방송 편

#### 명동백작

넘치는 생동감 속 또다른 진부한 환상



EBS 문화시리즈 제1편 '명동백작'.

명동백작은 새로운 드라마인 동시에 낡은 드라마다. 아니다. 명동백작은 그냥

다큐드라마일 뿐이다. 나는 명동백작이라는 이 다큐드라마를 보면서 묻는다. 예술의 진정성과 드라마라는 장르가 과연 교감할 수 있는지. 김수영의 시와 산문을 통해 5~60년대를 그려온 나에게 이 드라마는 생동감이 넘친다.

그러나 동시에 생동감이 없다. 내게 김수영과 박인환과 이종섭은 그럴싸한 가짜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느낌 역시 그들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틀림없는 가짜일 것이다. 화면 속 명동의 분위기와 그들의 대사와 몸짓에서 나는 무엇인지 모를 불편함과 안쓰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긍정의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

다. 대중문화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본격문화가 수면 위로 떠올라 오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다.

어떤 기자는 이 드라마에서는 일반드라마와 달리 음모나 영웅상 그리고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존 예술가들의 생활상과 시대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갈등 없는 드라마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들은 모두 갈등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 작가는 시대상과 연관된 그들의 갈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과 더불어 음모나 영웅상의 절실한 부서짐과 갈등의 진정한 근원을 보고 싶다. 드라마가 과연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처음의 생각으로 되돌아간다. 잘 짜여진 허구는 편협하고 진부한 사실보다 낫다. 그러나 그 허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보았다는 환상이 주는 만족감에서 떠나야 한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드라마의 문화사 재조명은 신선하다는 환상과 함께 또 다른 진부한 환상을 낳는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김수영, 박인환, 전혜린, 이종섭의 고뇌에 도달할 수 없다. '명동백작'은 그러한 진실의 역설적 성취다.

김수영이 죽기 1년 전에 쓴 시 중에 '텔레비전을 보면서'라는 부제가 붙은 '원호대사'라는 시가 있다. '속성이 같다는 원호

대사가 텔레비에 텔레비에 들어오고 말았다'라고 시작되는 시에서 아이나 식모는 활극이나 연애담을 기대한다.

그러나 김수영은 텔레비 속의 텔레비에 취한 원호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원호라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문제는 텔레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의 눈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원호 대신 마이크로가, '제니의 꿈'의 '제니'가 허깨비처럼 오가는 것을 보았던 김수영마저 결국 텔레비 속에 들어가 않고 말았으니, 허깨비들의 상징을 바라보는 안목이나 키워야겠다.

박 판 식

시인, 국문학박사

### 문화단신

#### '보는 소리, 듣는 영상'

한국멀티미디어음악학회(SIMM)와 멀티미디어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멀티미디어 음악회 '보는 소리, 듣는 영상'이 다음달 1일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열린다.

한국멀티미디어음악학회는 지난 5월 우리학교 영상정보통신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한 것으로 현재 교수 및 작곡가들이 컴퓨터 음악과 인터랙티브 영상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음악창작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번 공연은 소리와 영상을 들 수 있는 공감각적 요소를 활용한 SIMM 회원들의 창작 작품들로 구성된 이색적인 음악회가 될 예정이다.

#### 2004 노동만화전

2004 노동만화전 '내 이웃사람들'이 다음달 5일부터 4일간 서울 에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는 노동만화네트워크 '플룩'이 주최하는 만화전시회로 지난 2001년에 이어 4번째로 열리는 행사이다.

'노동만화'란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만화, 일상을 다룬 만화를 뜻하며 '노동만화네트워크'는 직장에 다니며 비정기적으로 노동 등에 만화를 기고했던 아마추어 작가들이 교류의 필요성을 느껴 만든 만화소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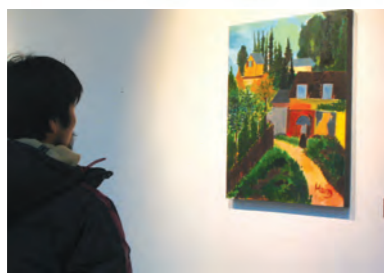
행사는 △주제전=내 이웃 사람들-내 이웃 또는 작가가 살아가는 이야기 △기획전=출동! 현장만화-노동만화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 △작가전=13인 13색-작가들이 1년간 작업한 작품 전시 등의 테마로 구성된다. 또한 △만화가 이희재씨 초청강연 △관객이 직접 캐리커처, 배지, 핸드폰 줄을 제작하는 '참여마당'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 동학 속 1년을 마감하는 행사들

## 방법도 의미도 각양각색

2004년 겨울방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동학 곳곳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행사들로 분주하다. 학생들은 학과, 동아리 등 자신이 1년 동안 활동했던 곳에서 한 해 활동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행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 '그리고 그림' 그림전 1년간의 열정 담긴 갤러리



그림동아리 '그리고 그림'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갤러리 동국에서 그림전을 열었다.

동아리 현재 회원들 및 졸업한 선배들의 작품 등 총 22점이 전시된 이번 그림전은 지난 1년간 회원들이 준비해 온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 행사는 매년 봄 열리는 전시회인 '소품전'에 이어 동아리 내 가장 큰 행사이다. 특히 학기 말인 매년 11월에 열려 구성원들이 갖는 의미는 더 크다. 이 행사와 함께 '그리고 그림'의 1년 활동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동아리 회원 성다움(썸2) 양은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새내기 권지은(컴공1) 양에게 이번 전시회는 지난 반년간의 동아리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술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아무 때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전시회에 대해 "급하게 준비해 작품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행사를 이끈 동아리 회장은 더욱 남다르다. 손경식(건축2) 회장은 "졸업한 많은 선배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전시

회를 통해 학생들이 동아리와 그림에 관심을 갖고 더욱 진속하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디딤돌 정기영화제 관객 참여 아쉬운 행사

지난 17일부터 3일간 학림관 소강당에서 '음악가'에 관한 영화 9편을 상영하는 행사를 가진 영화공동체 디딤돌. 봄·가을에 열리는 '디딤돌 정기영화제'는 매년 한 주제를 정해 그와 관련된 여러 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그런데 이번 영화제의 경우 학생들의 관람이 적어 늦가을 주운 날씨가 동아리 회원들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한 행사였다.

가을 정기영화제는 디딤돌의 마지막 행사이다. 류신우(전자3) 회장은 "좋은 영화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지는 영화제의 본래취지가 관객과 수의 급격한 저하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앞으로는 창작영화 상영, 타대학 영화동아리와의 교류 상영, 유명감독 단편영화 상영 등을 통해 영화제의 성격에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시켜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군은 "현재 영화제는 예전 선배들로부터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관성에 젖은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디딤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자신의 1년 활동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기보다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디딤돌의 발전방안 구성은 동아리 스스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디딤돌은 여름에 실시하는 창작영화 제작을 동아리 행사 중 가장 중요시한다. 이것은 동아리 구성원들이 시나리오 작성부터 영화촬영 및 편집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하는 것으로 영화동아리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행사라 할 수 있다. 류 군은 또한 "역대 만든 창작영화 8편을 내년에 모두 상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음해를 계획했다.

각 학과들도 1년을 정리하면서 함께 진복을 도모

하고 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한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해 학과 교수님과 동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갖지만 학과를 넘어 타 학과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학과도 있다.

#### 국제학과 '와인시음회' 우리시대 꼭 필요한 '상식' 배우기



국제학과는 지난 17일 동국관 M405 강의실에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와인 시음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타학과 학생 및 교수 등 70여명이 참여해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행사는 와인에 대한 강의와 시음회, 이벤트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제학과 김석우 교수가 △와인의 역사 △와인의 종류 △상황에 따른 와인 선택 등 와인에 대해 다양한 기본 지식과 에티켓을 강연했다. 또한 강연 후 이어진 시음회와 이벤트는 학생들이 고급 와인들을 마시고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 대해 김영수(국제3) 회장은 "국제교류가 늘어나 국제관계에서 에티켓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들에게 상식적인 와인 예절을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학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타학과 학생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 정치외교학과 '모의국회' 준비과정이 더 뜻깊은 행사

전통적인 역사를 가지고 학과만의 특성을 살린 행사를 진행하는 학과도 있다.

정치외교학과는 지난 17일 오후 6시 중강당에서 '대동민국 모의국회'를 열었다. 올해 16번째 열린 모의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주제로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사회과학부 1학년 학생들이 함께 만들었다.



1막은 일제 징병제,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의 과거사를 재현하는 연극으로, 2막은 국회에서 과거사진상규명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학생들의 시각으로 그렸다.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모의국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며, 시대가 지나면서 그 성격과 모습이 점차 변화했다.

차경운(정외2) 학생회장은 "16번째 모의국회이기도 하지만 처음 시작 시기는 학과 창설 시기와 비슷하다"며 "당시에는 법과대의 모의법회와 북한학과의 모의정상회담 등을 모두 포함했고 연극적 요소 없이 보다 정치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가 다소 줄어든 것은 시대에 맞게 변화한 것일 뿐 모의국회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의국회는 매년 정의과 학생들에게 매우 큰 기쁨이자 부담이다. 학생들에게 학과의 가장 큰 행사로 이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지만 사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학과 구성원들간의 친밀감과 연대감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큰 보람이다. 이는 지난 1년간 생긴 학과 내 여러 문제점을 비롯해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로써 모의국회는 정치외교학과 구성원의 1년을 정리하는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매년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집단의 역사를 잇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관성화 될 우려가 있다. 행사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이 행사의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단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제 새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집단의 1년 마무리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2004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 일정 안내

2004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성적입력 기간** : 2004. 12. 9(목) - 19(일), 24시까지입니다
- 성적 공시 및 정정기간** : 12. 15(수) - 19(일) 24시까지  
\* 12. 15(수) - 19(일)까지 입력 처리된 성적에 한하여 공시되며, 이후에 입력된 성적은 담당교수별로 저장처리한 후 바로 공시됩니다.
- 성적 공시기간중의 유의사항**  
(1)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님께 직접 확인하여 잘못된 성적을 바로 잡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별도의 정정기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 이후의 정정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확인 및 정정하여야 합니다.
- 성적표 E-mail 성적 발송** : 2004. 12. 31(금)예정
- 성적표 발송** : 2005. 1. 3(월) 예정  
\* **E-mail 등록 및 주소 확인**  
: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주소지변경**에서 E-mail 등록 및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E-mail을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개인성적을 발송합니다.)

교무처

## 건학100주년기념 교사(校史) 자료 수집

건학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06년 명진학교 개교당시부터 현재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校史)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불전, 해와문,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본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동국인의 긍지를 고취시켜 일류대국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함.
  - 수집 기간** : 2005년 2월 28일까지
  - 수집 장소** : 동국대학교 박물관
  - 교사자료 수집내용**
    - 건학에 기여한 선각자 및 사찰에 관한 자료(1906년 전후 문헌, 사진자료)  
가. 선각자 : 이보담, 김철해, 김우운, 박보영, 김석중, 홍원조, 김보문, 김포운, 김현암(9인)  
나. 사찰 : ▶ 대법산 : 임흥사(서울)  
▶ 중법산 : 봉은사(광주) 봉선사(양주), 용주사(수원), 마곡사(광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영천), 통도사(양산), 동화사(대구), 월정사(강릉), 유점사(고성), 석왕사(안변), 귀주사(함흥), 보현사(영남), 신흥사(해주)
    - 문헌자료  
가. 서적 및 정기간행물 : 각 기관에서 발행한 서적 및 간행물  
나. 문서, 문건 : 공문서, 업무일지, 회의록, 대자보, 학생활동문건 등  
다. 각종 증서류 : 학위증, 학생증, 성적증명서, 교직원신분증 등  
라. 기념인쇄 및 홍보물 : 다이어리, 달력, 카드, 팸플렛, 포스트, 페넌트 등
    - 기념품 : 교표, 교기, 우승컵,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 복식자료 : 교복, 교모, 체육복, 교련복, 학군단복, 실습복, 행사셔츠 등
    - 사진자료 :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 휘호, 서예, 유품 등
    - 집기 및 비품 자료 : 각종 인장, 연판 등
- \* 문의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02)2260-3120/3122, 박물관 (02)2260-3462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 제3회 동국청우수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셨던 故 청우 최재구 선생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제3회 동국청우수상' 수상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받습니다.

- 추천대상** : 동국인(동문, 교수, 직원, 학생)
- 구비서류**
  - 추천서(A4용지, 형식자유, 공적사항 明記) 1부
  - 피추천인 이력서 및 사진 1부
  - 공적 증명자료 (해당자에 한함) 1부
- 접수마감** : 2004년 11월 25일까지
- 시 상** : 상패 및 부상(순금 30돈)
- 시 상 일** : 2004년 12월 16일(목) 오후 6시:30 엠베서더 호텔2층 (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행사장)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홍보실내  
전화 016-896-3916(윤천영) / 2260-3025(신관호)

청우최재구선생추모사업회  
회장 류 주 형